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1부_지평 사회적가치 보고

MESSAGE 04

OVERVIEW 06

- 1. 법무법인(유한) 지평 08
- 2. 지평의 비전, 가치, 10대 과제 10
- 3. 2019년 경영 Keyword 11
- 4. 이해관계자 12
- 5. 사회적가치 경영 14
- + 인터뷰 임성택 사회적가치위원장 15

ETHICS 38

- 1. 지평의 윤리현장 40
- 2. 윤리의 실천과 통제 41
- 3. 윤리적인 수임 42
- 4. 공직 퇴임 전문가의 근무 현황 43
- 5. 고객의 비밀준수 44
- + 인터뷰 심희정 윤리위원회 위원 45

2부_지평·두루 공익활동 보고

공익활동 10대 뉴스 52

법률 공익활동 54

- 1. 장애 인권 활동 56
- 2. 아동·청소년 인권 활동 57
- 3. 사회적경제·기업공익 활동 58
- 4.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 활동 59
- 5. 기타 공익 활동 60
- 6. 공익법 증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활동 61
- + 인터뷰 이경림 세움 대표 62
- + 인터뷰 여연심 두루 후원자 63

BUSINESS 16

- 1. 사업성과 18
- 2. 업무 수행을 통한 사회적가치의 창출 20
- + 실무수습 참가자 후기 22
- 3. 조달활동에서의 사회적가치의 추구 24
- + 인터뷰 곽은비 변호사 25

ENVIRONMENT 46

- 1. 그린오피스 정책 48
- + 인터뷰 박시원 과장(환경실천소모임) 49

EMPLOYMENT 26

- 1.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28
- 2. 구성원의 다양성 29
- 3.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32
- 4. 소수자 차별금지 33
- 5. 교육과 훈련 34
- 6. 복지와 안전 35
- + 인터뷰 조원의 차장(노사협의회) 36
- + 인터뷰 한철용 변호사 37

APPENDIX

GRI 인덱스 72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77

유엔글로벌콤팩트 79

공익활동 평가지표 80

외부 전문가 비평 82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2019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1 부 ————— 사 회 적 가 치 보 고



지 평 의 사 회 적 가 치 경 영 과 지 속 가 능 성

'사회적가치'라 함은 사회 구성 주체, 즉 정부·기업·시민사회·개개시민 등이 가치의 척도를 '개인'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두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맞은 행동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양식을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 찾는 것은 비약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만 차지하려 들지 말라', '나누자'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마태복음 19장 24절)이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사회적가치' 실현의 행동양식을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사회적가치 경영'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영주체의 활동 모음입니다. 이번 '2019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평이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GRI Standards에 맞추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나름의 도전이지만, 사회적가치 경영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설피품 탓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해야 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다는 자각의 시간으로 보고서를 채웠습니다. 그만큼 숨기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용기 내어 솔직하게 쓰려고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지평의 사회적가치 경영이 이후에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읽는 분들의 질정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볍게 등 두드리주며 격려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형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OVERVIEW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되어, 2019년 12월 31일 기준 230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창립정신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며 동시에 윤리성, 공정성 및 민주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지평은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지향하며,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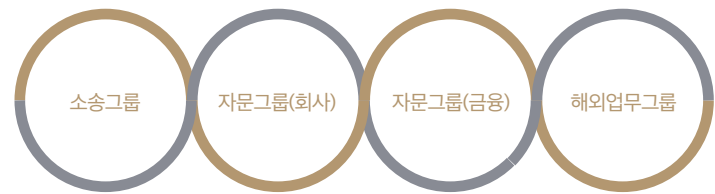
법무법인(유한) 지평

PROFILE

| | |
|-------|-------------------------------|
| 명칭 | 법무법인(유한) 지평 (JIPYONG LLC) |
| 본사위치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
| 대표변호사 |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
| 설립일 | 2000년 4월 3일 |

SERVICES AND SPECIALTIES

지평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별, 분야별, 산업별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설 / 부동산 / 금융 / 자본시장 · PE / IP · IT / 해상 / 형사 / 헌법 · 행정 / 상속 · 가사 · 기업승계 / 조세 / 노동 / 보험 / 도산 / 회사관계 / 공정거래 / 언론 / 국제분쟁 / 민사 / 의료 자문(회사) M&A / 회사법 · 기업자문 / 해외투자 / 국제거래 / 도산 · 구조조정 / 조세 / 에너지 / 환경 / 바이오 · 제약 · 헬스케어 / IT / IP / 엔터테인먼트 / 공정거래 / 노동 / 공공정책 자문(금융) 부동산금융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금융 / 인수금융 / 해외금융 / 금융규제 / PE / IPO / 자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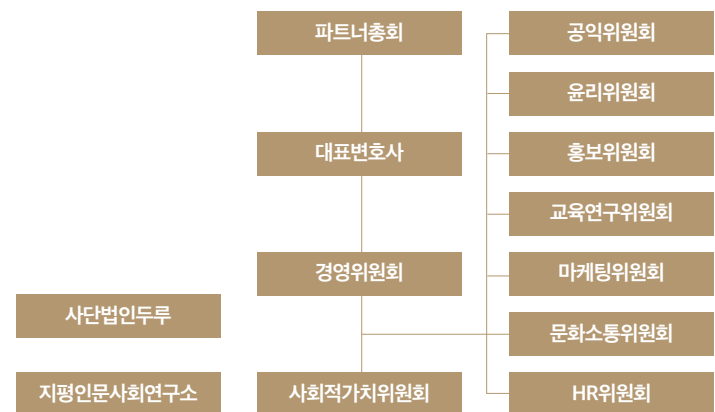
GOVERNANCE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파트너총회는 경영의 기본방침 및 지평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현안 등을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파트너총회에서 선출된 경영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위원회가 파트너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를 경영의 중요과제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 | |
|----------|--|
| 대표변호사 |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
| 경영위원 | 김상준, 김지홍, 이승현, 정원, 정철 |
| 사회적가치위원회 | 김지형, 임성택, 김상준, 김지홍, 황인영, 김영수, 장품, 천춘미, 김용미, 권주연, 김현정 |

ORGANIZATION

지평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경영의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평은 공익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HR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직원이 참여하여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SOCIAL IMPACT

지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9명의 공익 전업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인문학 발전 위에 법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평인문사회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주축으로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2012년 설립을 조력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노동법에 정통한 법률가의 육성과 노동법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노동법 실무의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며, 노동인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법률가 및 노동조합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밀 아카데미, 해밀포럼, 노동판례연구 등의 교육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EMBERS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¹⁾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평의 전체 구성원²⁾ 405명 중 전문가는 230명이고, 직원은 175명입니다. 로펌의 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Partner)와 소속변호사(Associate)로 구분되는데 지평은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가 76명, 소속변호사가 87명입니다. 자격국가 별로 나누면 한국변호사가 163명, 외국변호사는 47명입니다. 국내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만큼 지평에는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고, 외국변호사의 자격국가도 다양합니다.

1) 이 보고서에서 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등 로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구성원을 '전문가'라고 표시합니다.
2) 이 보고서에서는 지평의 모든 전문가와 직원을 합쳐 '구성원'이라고 표시합니다.

GLOBAL REACH

지평은 일찍부터 해외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여 한국의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평은 현재 11개 해외 및 국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고객 발굴 및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수행으로 고객의 해외 사업 진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에도 오랫동안 정진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단위 : 명)

| | | 구성원변호사 | 76 | 230 |
|------------|--------|----------------|-----|-----|
| 전문가 | 한국변호사 | 소속변호사 | 87 | |
| | | 외국변호사 | 47 | |
| | 기타 전문가 | 한국회계사 | 2 | |
| | | 외국회계사 | 3 | |
| | | 고문 · 자문 · 전문위원 | 15 | |
| 직원 | | | 175 | |
| 지평의 구성원 합계 | | | 405 | |

02

지평의 비전, 가치, 10대 과제

VISION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

VALUES

- 사람중심
- 진정성
- 진취성
- 윤리성

10대 과제

- 일을 잘하는 전문화된 로펌
- 모두가 주인이 되는 로펌
-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로펌
- 글로벌 로펌
- 공익활동을 가장 잘하는 로펌
- 윤리적인 로펌
- 자기 발전을 지원하는 로펌
- 여성을 존중하는 로펌
- 소수자를 배려하는 로펌
- 환경을 생각하는 로펌

03

2019 경영 KEYWORD



COMMUNICATION

내부의 소통, 고객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지평의 구성원은 소통을 잘 하는지, 빠르게 응답하고, 잘 경청하여, 제때에 설명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성찰합니다. 내부의 소통뿐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OOPERATION

팀 플레이, 팀간 협력강화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팀 플레이를 하고, 팀 내부뿐 아니라 팀간 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합니다. 협력을 잘 하는 것, 협업능력을 높이는 것은 지평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CHALLENGE

도전하는 나, 팀, 지평

지평은 혁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지평을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평은 구성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CHANGE

역량, 문화, 습관의 가시적 변화

가시적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평과 지평의 구성원들은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역량뿐 아니라 문화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2020년, 지평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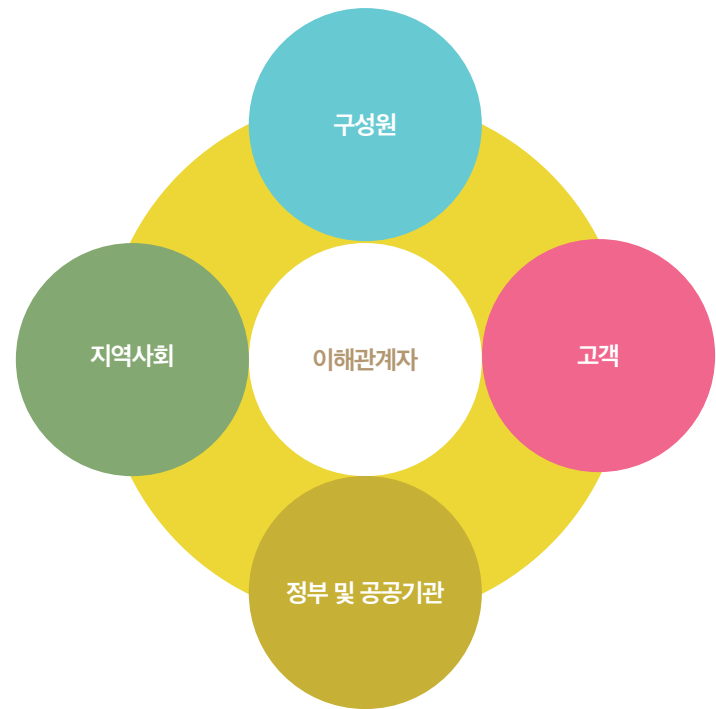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지평', '로펌 이상의 로펌', '세상에 하나뿐인 로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

이해관계자

지평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및 공공기관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내 웹진
- 노사협의회/예비구성원회의
- 팀별 워크숍, 동호회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 무료 법률상담

- 고객초청세미나, 뉴스레터
- 홈페이지, SNS
- 공익보고서, 「법률의 지평」 발간

- 투명한 조세정책
-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 협회 및 외부 이니셔티브 참여



구성원

지평은 구성원의 책임있는 경영참여로 수평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근로자와 로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로펌을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소속변호사 전원으로 구성된 예비구성원회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채용 및 교육훈련, 안전·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의 핵심주제는 업무시간 조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추구입니다. 이외에도 팀별 워크숍, 사내웹진, 지평 아카데미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혁신제안제도'를 통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업무혁신방안을 제안받고, 이를 실현하여 성과를 내는 등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객

지평은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뉴스레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객에게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며, 고객과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웹과 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회계 등의 전문분야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평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글을 엮은 「법률의 지평」을 발간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평은 법률교육과 상담 등 지역 법률 수요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응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및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지역사회 참여

-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법률 교육과 법률 상담 진행
- 탈북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2세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래열학교 후원
- 노숙인들의 자활지원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 빵을 구워 나누는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참여



정부 및 공공기관

지평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의 여러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9명의 전문가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 활동은 총 172건에 이릅니다.

또한, 지평은 2019년 9월 24일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연차총회를 맞이하여 '지평 리셉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지평은 2019년에 한국 로펌 중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학회와 전문가단체 및 NGO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5

사회적가치 경영

지평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평이 설립한 사단법인 두루가 2019년 9월 설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두루 설립 5주년을 계기로 지평은 국내 로펌 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을 하였습니다. 기업이 '경제적가치'뿐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사회적가치 경영'은 국내외 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고 있으며, 특히 로펌은 「변호사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조직이므로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01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가치 경영을 위한 조직체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구축

04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02

구성원의 채용, 법률업무, 고객관계, 법조사회 등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고 실천

05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두루를 장기적으로 공익전문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확대

03

매년 1개 이상의 사회적 과제를 설정하여 전사적으로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

06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사회적가치위원회

지평은 2019년 9월 24일 한국의 로펌 중 최초로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을 하고, 그 후속조치로 사회적가치위원회(Social Value Committee)를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의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내재화하고 이를 실현·추동합니다. 또한 인사, 교육, 업무, 조달, 지배구조, 환경 등 지평의 모든 영역과 법조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가치의 관점을 반영시키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컴팩트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성택 대표변호사
- 위원 윤리위원회(김지형), 경영위원회(김상준), 공익위원회(김영수), 교육연구위원회(김지홍), HR위원회(장품), 환경실천소모임(황인영), 행정지원팀장(천춘미), 인사교육팀장(김용미), 경영지원팀장(권주연), 홍보팀장(김현정)

INTERVIEW

로펌과 사회적가치, 길을 묻다



임성택 사회적가치위원장

'사회적가치' 그리고 '사회적가치 경영'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평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요.

경제적가치뿐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영이 사회적가치 경영입니다. 로펌은 법률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영리조직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것이죠.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가치는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본질로 하는 변호사업의 본질상 로펌은 더욱 사회적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로펌도 공익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으나 이는 부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적가치 경영의 의미는 사회적가치 추구를 경제적가치 추구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보자는 것입니다. 로펌의 지배구조, 채용, 법률업무, 조달, 고객관계, 법조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고 실천하자는 것이죠.

지평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매년 지평이 전사적으로 추진할 사회적 과제를 선정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 사회적 문제가 선정되면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입법 개선 활동, 법률상담과 자문, 기타 지원 등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루를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지평은 구성원의 채용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등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것, 기존의 법률업무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법률업무를 개척하는 것,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것, 법조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등을 실천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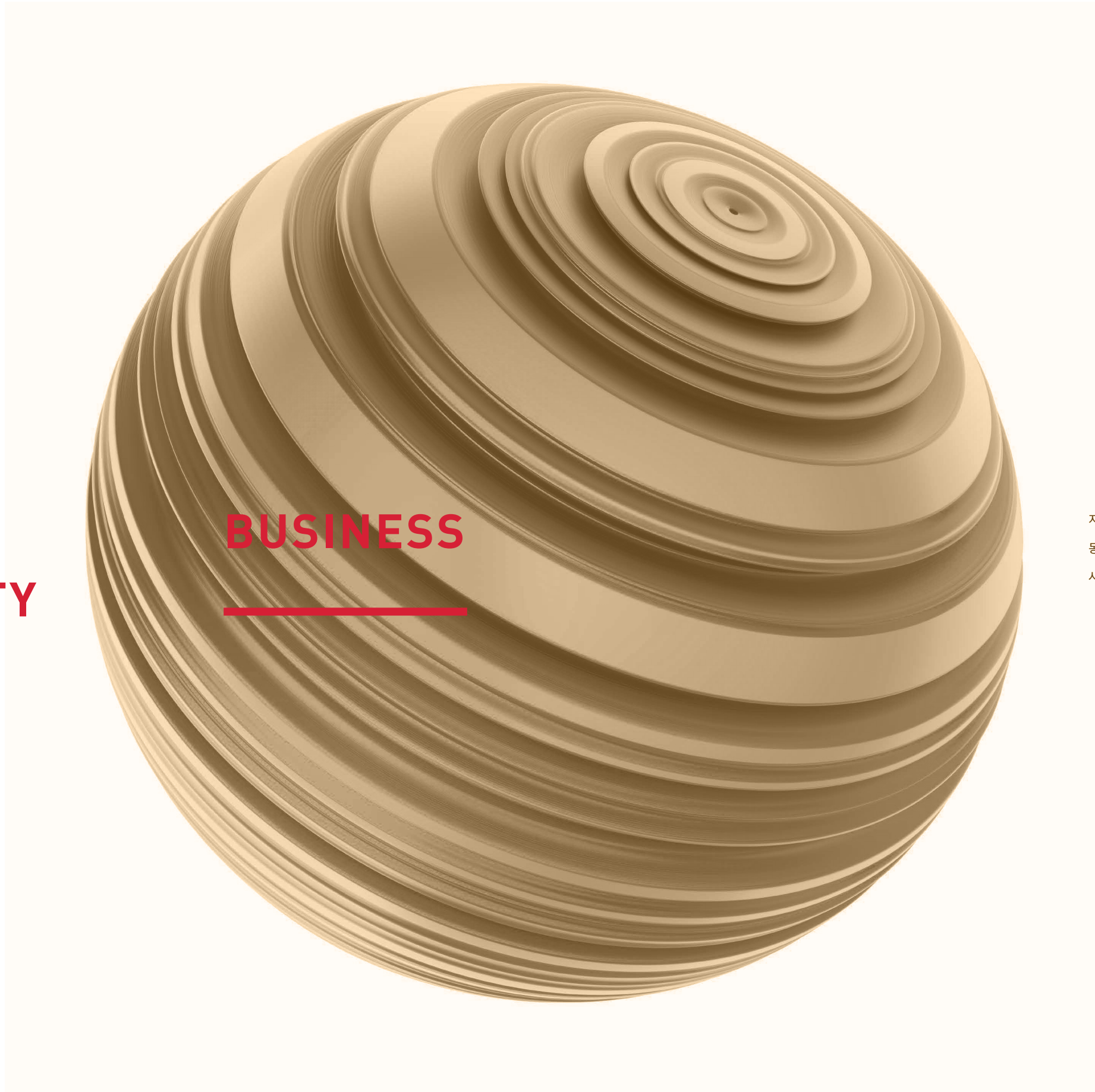
2020년에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0년 처음으로 지평이 전사적으로 추진할 사회적 과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린 pro-bono, 수용자자녀 인권개선과 같은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지역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우리 함께"가 채택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새로 구성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자리잡게 하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가치 경영에 대한 공감을 얻는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나아가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작년에 인권경영팀을 발족했습니다. 기업이 인권을 생각하고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경영을 한다는 것인데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기업 차원에서 주로 진행되지만 사기업에서도 인권경영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평 구성원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컨설턴트가 변호사에 관해 쓴 글을 보았는데요. 법률업무도 서비스를 파는 일이지만, 변호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 이상이라는 글이었어요. "They are counselors, business advisors, advocates, sometimes psychologists, and often mentors."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기업이 본질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변호사 또는 로펌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회적가치 경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지평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가치 추구를 중요 과제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성을 쌓고 특화된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01

사업성과

업무 내용

지평은 소송·중재, M&A,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증권, PE,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구조조정, 지적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가사 전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 M&A
- 기업법무일반
- 기업지배구조
- 도산·회생·기업구조조정
- 해외투자
- 외국인투자
- 공공정책·입법지원
-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 인권경영, CSR/지속가능성/사회적가치
- 위기관리

금융

- 부동산금융·실물투자
- SOC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금융/파생금융
- 인수금융
- 선박·항공기금융
- IPO·자본시장
- 사모펀드·PE
- 금융규제·금융회사 자문
- 금융회사M&A·해외진출
- 금융·증권·보험분쟁

분쟁해결

- 금융·증권·보험분쟁
- 건설·부동산 분쟁
- 공정거래 분쟁
- 인사·노무·노동 분쟁
- IP 분쟁
- 도산 분쟁
- 경영권분쟁·투자자소송
- 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
- 상사·민사분쟁
- 국제중재
- 해외소송
- 헌법·행정쟁송
- 의료소송
- 가사소송
- 조세쟁송
- 언론소송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분쟁
- 건설행정·부동산공법
- 공공입찰·공공계약
- 국제건설

해상·항공

- 해상·항공

공정거래

- 부당공동행위(담합)
-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
-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 기업결합
-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 표시광고·약관
- 공정거래 분쟁

인사·노무

- 인사·노무·노동 분쟁
-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

형사

- 기업형사
- 일반형사
- 금융형사
- 증권형사
- 건설·부동산 형사
- 노동형사
- 조세형사
- 공정거래형사
- 선거형사
- 종교형사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 ### 상속·가사·가업승계
-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분쟁
 -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업승계
 - 기타 가사사건

조세

- 조세쟁송
- 조세자문
- 세무 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 회계규제
- 관세 및 국제통상

보험

- 보험 분쟁
- 보험 법령
- 특종 보험
- 해상·항공보험·재보험
- 보험회사 검사
- 보험회사 지점 설립/운영
- 보험회사 인수 합작
- 보험회사 상장

산업별

-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에너지·자원·인프라
- 환경
- 건설·부동산
- 전자금융·핀테크
- 신기술·신산업
- 엔터테인먼트·스포츠·레저
- 공공계약·철충교역
- R&D
- 교육·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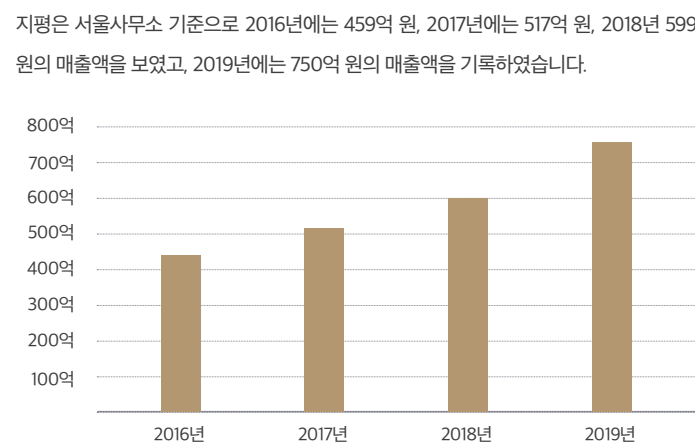
국가별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중국
- 러시아·중앙아시아
- 캄보디아·라오스·태국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 필리핀
- 일본
- 인도·중동·아프리카
- 영국·독일·유럽
- 미국·캐나다
- 호주·뉴질랜드
- 중남미
- 북한 - 북한투자지원센터

2019년도 사업성과

| 항목 | 금액(단위 : 천원) | 비고 |
|------|-------------|---------------|
| 매출액 | ₩74,318,580 | 서울사무소 기준 |
| 기타수익 | ₩755,502 | (지방·해외사무소 제외) |

연도별 매출액 추이



지평은 서울사무소 기준으로 2016년에는 459억 원, 2017년에는 517억 원, 2018년 599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고, 2019년에는 7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제적 가치의 분배¹⁾

| 이해관계자 | 항목 | 금액(단위 : 천원) |
|-------|---------------------------------|---------------------------|
| 구성원 | 급여 | ₩55,300,480 |
| | 퇴직급여 ²⁾ | ₩1,626,406 |
| 협력사 | 운영비 (임차료 및 비품 구입 등 영업외비용 포함) | ₩14,855,936 |
| | 법인세 등 세금, 공과 | ₩1,535,867 |
| 정부 | (급여와 퇴직급여 중 소득세, 주민세) | ₩10,092,000 ³⁾ |
| | 기부금 ⁴⁾ | ₩623,690 |
| 지역사회 | 기타 | ₩2,563 |

1) 서울사무소 기준
 2) 근로자의 100%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해당 금액은 구성원 급여, 퇴직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1대1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기부하는 곳에 지평이 동일 금액을 기부하는 정책) 기부금 중 구성원이 기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2

업무 수행을 통한 사회적가치의 창출

지평의 사회적가치 창출

지평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등 분쟁절차에서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활동을 통해 고객의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법치주의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평은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에 대해 사회적가치 경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 추구를 중요 과제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업무에 특화된 팀 조직들을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인권경영팀

지평 인권경영팀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진정, 민원,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환경팀

지평 환경팀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문, 탄소배출권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과 환경단체에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법규 준수 관련 법률자문 업무, 환경권 관련 각종 소송과 분쟁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지원

소셜벤처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다양한 소셜벤처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들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 소셜벤처 지원그룹과 MOU를 맺어 소셜벤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변호사 1명과 소셜벤처 1곳을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소셜벤처 20곳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평의 법제연구

지평은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법률자문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률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고, 더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19년도에 총 14건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2019년도 지평이 수행해온 법제연구 및 자문 | |
|-----------------------------|--------------------------------|
| 미안마 진출기업 애로사항 보고서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
|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방안 연구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검토 |
| 남북 CEPA 합의서 작성과 법적 쟁점 분석 |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
| 법제교육(교육관계 법령 및 사례) 교재 개발 연구 | 남북경협 투자분쟁 해결절차 개선방안 |
|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 개성공단 법률자문단 |
| 지역R&D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 사회문화교류자문 |
| 장애 법적 정비사업 연구 | 포항지진피해자 구제 법안 검토 |

지평 · 두루 2019년도 하계 ·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지평은 2019년도 하계에 2차례에 걸쳐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 동안 약 4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변호사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2019년도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공익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구분 | 기간 | 대상 |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 |
|----------------|----------------------|-----|-----|---|
| 2019년도 하계 실무수습 | 1차 6월 24일 ~ 7월 5일 | 2학년 | 24명 | 서울대 6명, 성균관대 4명,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각 3명, 서강대/한국외대/경희대/부산대/아주대 각 1명 |
| | | | | 2차 7월 8일 ~ 7월 19일 |

두루는 2019년 여름과 겨울 각 2주 동안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루의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 구분 | 기간 | 대상 |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 |
|----------------|----------------|----------|-----|---|
| 2019년도 동계 실무수습 | 1월 7일 ~ 1월 18일 | 1학년, 2학년 | 17명 | 고려대/성균관대 각 3명, 인하대 2명, 부산대/서강대/서울시립대/아주대/연세대/원광대/전남대/중앙대/한양대 각 1명 |
| 2019년도 하계 실무수습 | 8월 5일 ~ 8월 16일 | 1학년, 2학년 | 11명 | 이화여대 3명, 서울대 2명, 경북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인하대 각 1명 |

외부 강연, 세미나 및 법학교육 지원

지평은 법률, 회계, 협상 등 업무 전문성과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 증권, PE, 건설 · 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 · 구조조정, 지적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 · 가사 등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문성과 실력, 경험, 지식을 고객 및 시민들에게 세미나, 강연, 기고 등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 2019년도 지평이 주최한 세미나 | |
|--------------------|--------------------------------|
| 2019년 3월 11일 |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세미나 |
| 2019년 3월 27일 | 북한투자 특별세미나 |
| 2019년 5월 16일 | 수출입결제방식 트렌드 및 국제무역규칙 세미나 |
| 2019년 9월 19일 | 오만과 한국 간의 무역과 투자 세미나 |
| 2019년 10월 22일 |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의 Collaboration 세미나 |
| 2019년 10월 30일 | 미국 대관업무 및 조달계약 실무와 전략 세미나 |
| 2019년 11월 22일 |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 설명회 |

법학 교육 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후배 법조인의 양성을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로 생각합니다. 이에 예비 법조인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평의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대학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명의 지평 변호사가 5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개 대학교에 출강하였습니다.

| 법학 교육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출강현황 | | |
|--------------------------|----------------------|-----------|
| 임성택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1학기 출강 |
| 강성국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1, 2학기 출강 |
| 최승수 변호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1, 2학기 출강 |
| 박용대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1학기 출강 |
| 김지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1학기 출강 |
| 권창영 변호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 1, 2학기 출강 |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학기 출강 |
| 배성진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1, 2학기 출강 |
| 정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학기 출강 |

지평만의 고유한 색깔, 분위기, 지향, 매력, 이 모든 것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명재연 학생

로스쿨에 들어온 이후 가장 즐거웠던 시간을 꼽으라면, 단연코 지평에서 실무수습을 한 2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로펌이라는 곳을 막연하고 차갑게만 느끼던 저에게, 지평은 조직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제가 만난 변호사님들은 한 분 한 분 훌륭한 법률전문가였지만, 동시에 변호사 개인이 아닌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유능하고 신뢰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로펌의 전문적인 업무와 공익에 대한 지향 사이에서 '경계인'의 삶을 사는 것 같다는 한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가 지평에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이유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지평에서는 구성원의 공익활동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익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을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장려했습니다. 유능한 법률전문가인 동시에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삶, 어쩌면 정확히도 경계인의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게, 지평은 이미 수 많은 선배들이 닦아 놓은 길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답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선배님들이 많은 곳



이정주 학생

지평은 상하간 소통이 매우 원활하고 구성원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6년간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은 업무에 대한 철저함을 강조하면서도 후배 변호사와 직원들의 행복을 조화시켜 나가려 했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서 선례를 만들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이 '선한 압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후배 변호사들은 그러한 선배 변호사들을 닮고 싶어했습니다

'삼인행필유야사'라는 논어의 문구처럼 누구에게서도 배울 점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전제될 때 온전한 배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진심을 담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평은 'Only One' 로펌이라 확신합니다. 답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선배님들과 보낸 2주는 앞으로 제 변호사로서의 삶에 지평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감나영 학생

두루에서 얻은,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글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제게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고 소중한 인연들이 남은 기회였습니다. 아무래도 공익변호사에 대한 꿈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저와 같이 방향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혼란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연 내가 공익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의감과 두려움이 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처럼 대단히 평범하고 잘 모르는 아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 속 끌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두루는 그런 용기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큰 가르침을 줘서 보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분들이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제게 너무도 감사한 김용진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처음 여러분 자신을 이 길로 이끈 그 마음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현장에서 뵙기를



김진영 학생

두루에서 보낸 2주는 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과제를 준비하며 공익변호사에 대한 제 마음이 작지 않다는 것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익에 대한 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변호사님들과 공익변호사의 역할, 가능성과 한계, 현장의 분위기 등에 대해 나누어 이야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법조인, 활동가, 기자, 외부 기관과 협업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오는 시너지가 굉장하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동료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제게 변론을 부탁한 분들을 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대리인이라는 말에, 변론이라는 말에 이토록 가슴 뛰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2주간 모든 부분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자 노력한 변호사님들과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루에 지원할까 고민중이시라면 절대 후회 없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열 번, 백 번 추천합니다. 존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추후에 현장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03

조달 활동에서의 사회적가치의 추구

지평은 조달 활동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모든 판매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한 제안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평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산업안전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제품을 세심하게 선택해서 조달합니다.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업체 제품의 구매를 자제합니다. 더불어 지평은 자원 보존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의 조달을 촉진합니다. 이외에도 구매처 선정 시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정무역제품업체를 선정하고자 리서치, 미팅, 견적 비교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 또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구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입니다.

| 지평 주요 구매 사례 | |
|-------------------|--|
| 점자명함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제작 |
| 도시락 | 국내 청정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도시락 구매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의 매출 촉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과 상생에 동참 |
| 화장실, 탕비실 비치 세정제 등 | 유기농 공정무역 제품 |
| 원두커피 | 직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커피원두와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커피 원두 |
| 복사용지 |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의 복사용지 |
| 문서파쇄 |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 문서파쇄업체 |
| 노인택배 | 지역상생과 노인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서대문지역 노인 지하철택배 이용 |

INTERVIEW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



곽은비 변호사

인권경영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권경영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도 인권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국제사회는 기업에 인권 존중 책임이 있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기업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큰 규모의 사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권경영 관련 연구와 용역을 수행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알려주세요.

특정한 기업의 운영 전반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 침해 리스크를 파악 및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방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조언하는 업무를 했습니다(전 과정을 통틀어 인권영향평가 또는 인권실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현존하는 또는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후 진단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 기업의 규정을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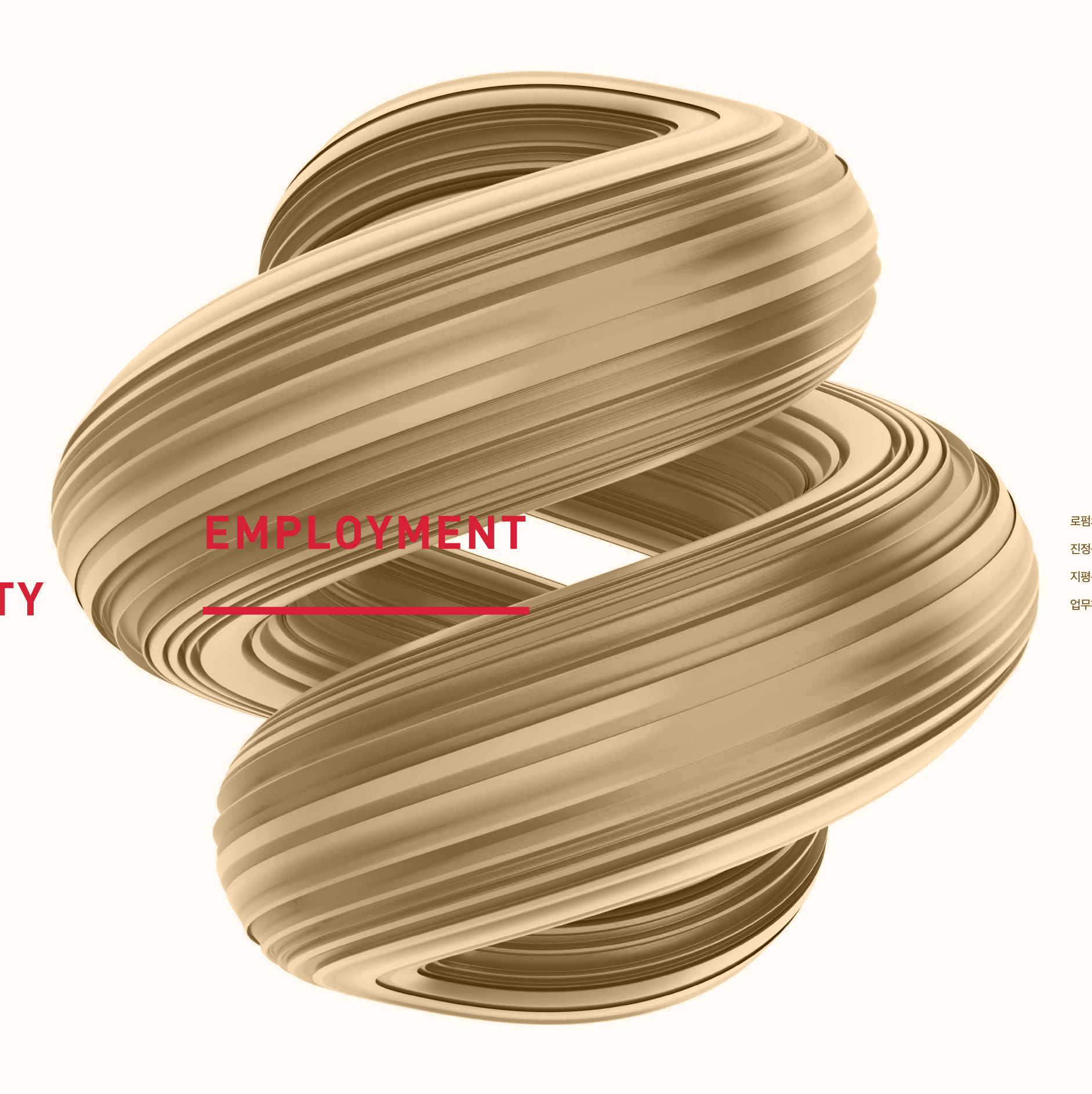
위의 연구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셨는지요?

우선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을 기업 내의 피해자로 상정하기는 쉽지만, 기업의 일부로서 기업 밖에 있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성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권경영을 접함으로써 실무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에 따라 인권 침해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을 기업이 실제로 시정한다면 더욱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평이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인권경영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공공기관은 인력이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영진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율성이 더 높은 사기업들의 인권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더 큰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에, 기업의 편익보다는 인권의 관점에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지평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EMPLOYMENT

로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중심'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지평에서
진정성과 윤리성을 가진 진취적인 인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평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채용절차, 다양한 구성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1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평의 소속변호사

지평의 변호사 채용정책은 한마디로 '동업자 찾기'입니다. 지평은 소속변호사가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HR위원회는 최고의 동업자에 걸맞은 최선의 채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실무수습 선발 및 신입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 기준을 고려 요소로 포함시켜 2019년에는 보다 다양한 출신학교에서 실무수습 및 신입변호사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혼인 여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직원

지평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을 비롯한 채용과정에서 성별·연령·외모·병력 등 비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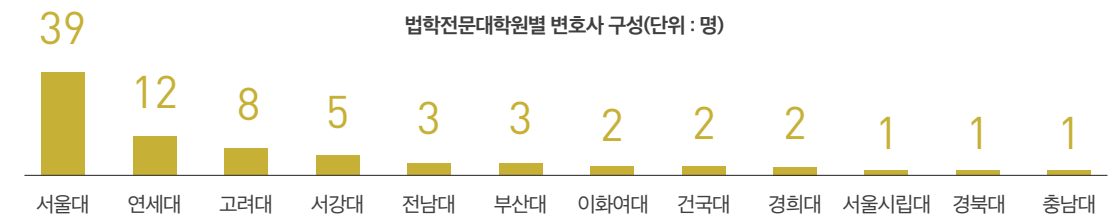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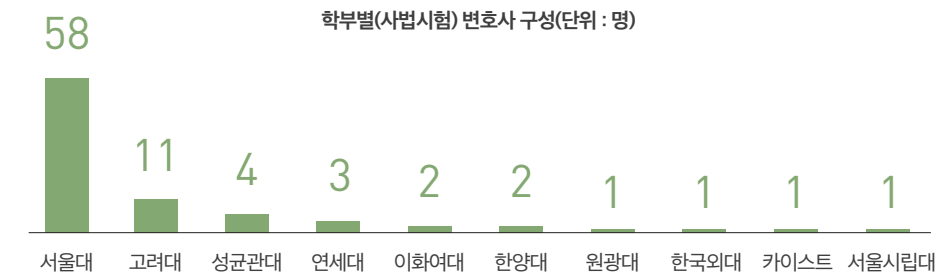
2019 신규채용 성과 및 이직/휴직 현황(기준 : 명)

| 구분 | 입사 | 퇴직 | 퇴직률 |
|-----|----|----|-------|
| 전문가 | 45 | 21 | 9.1% |
| 직원 | 27 | 19 | 10.9% |
| 합계 | 72 | 40 | 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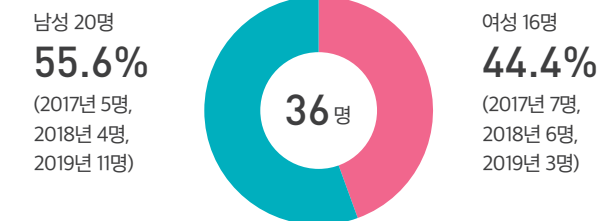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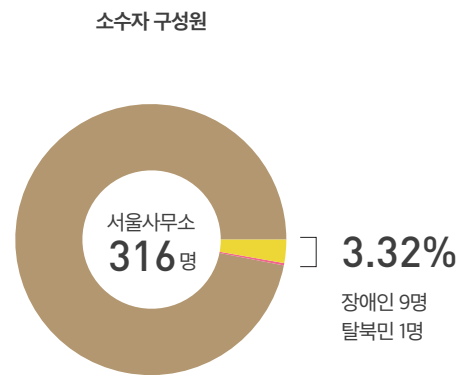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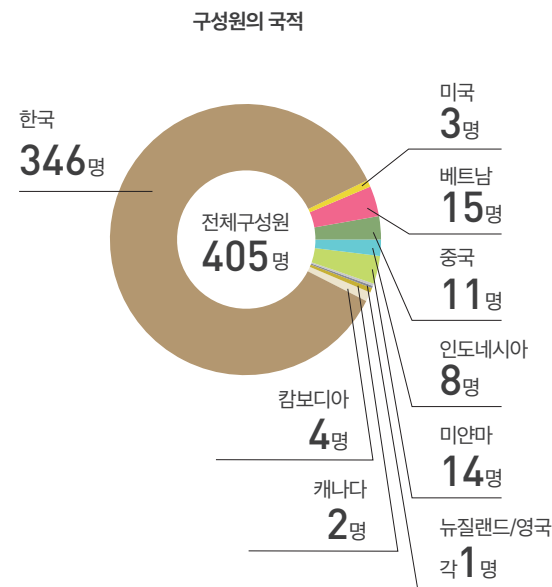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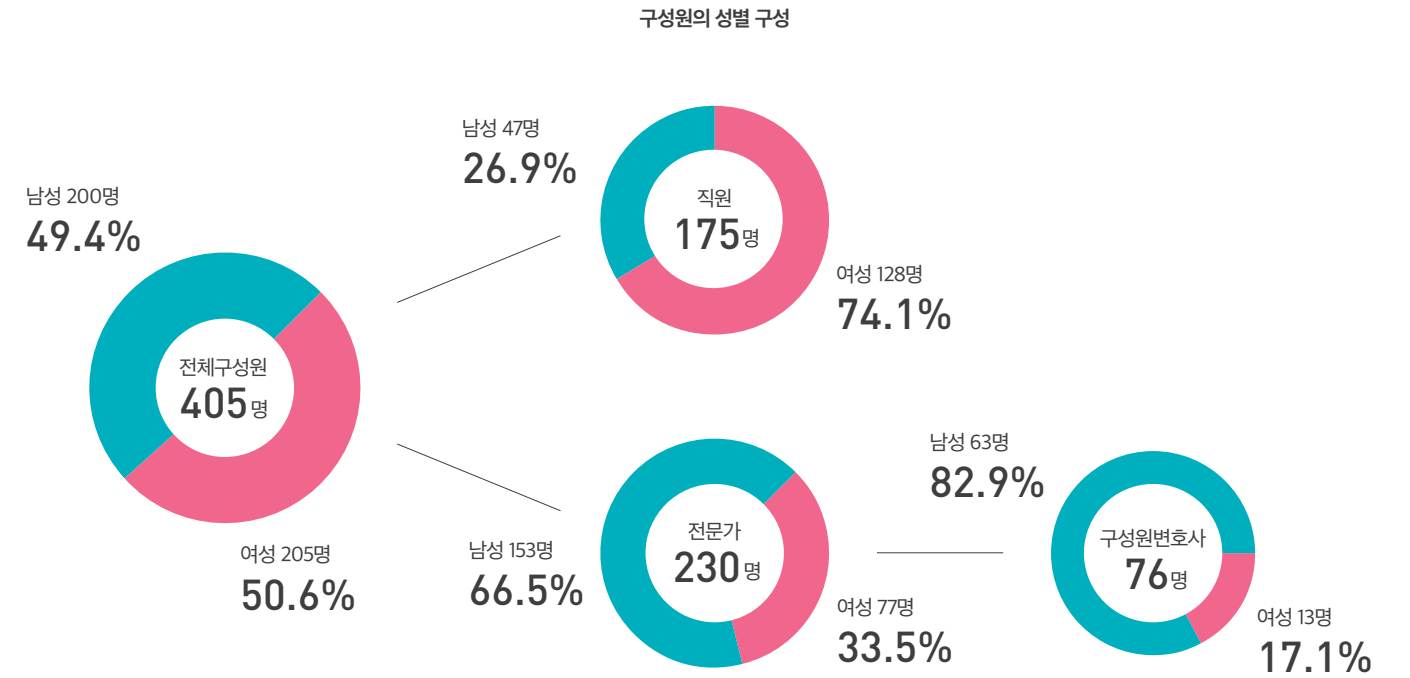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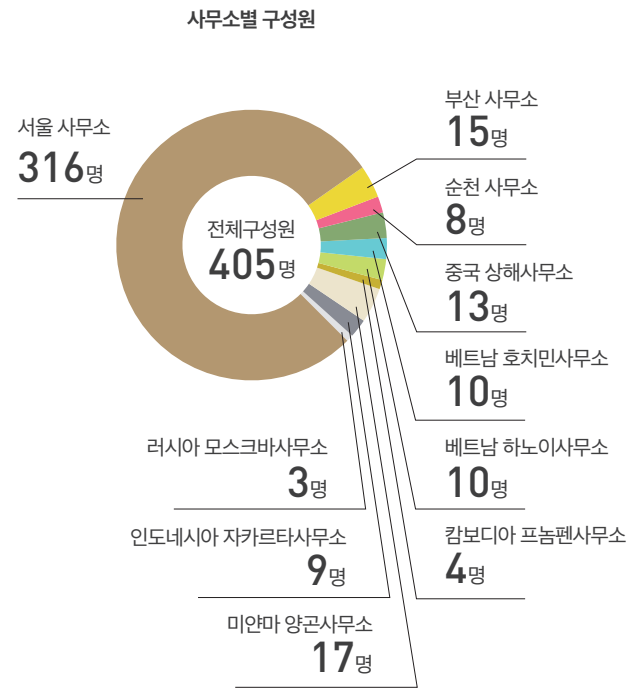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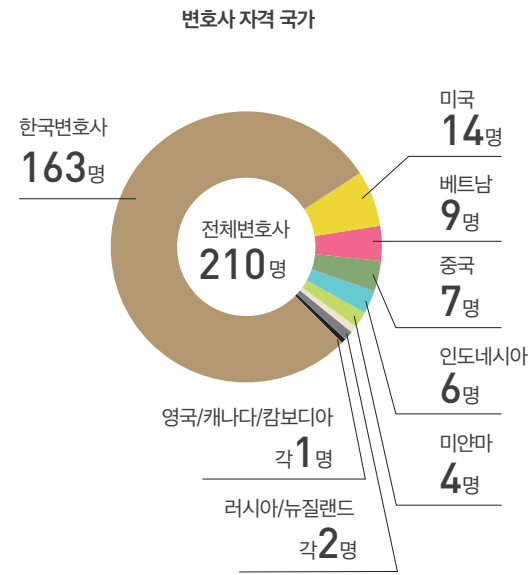
구성원의 다양성

지평은 변호사의 특정 학교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 채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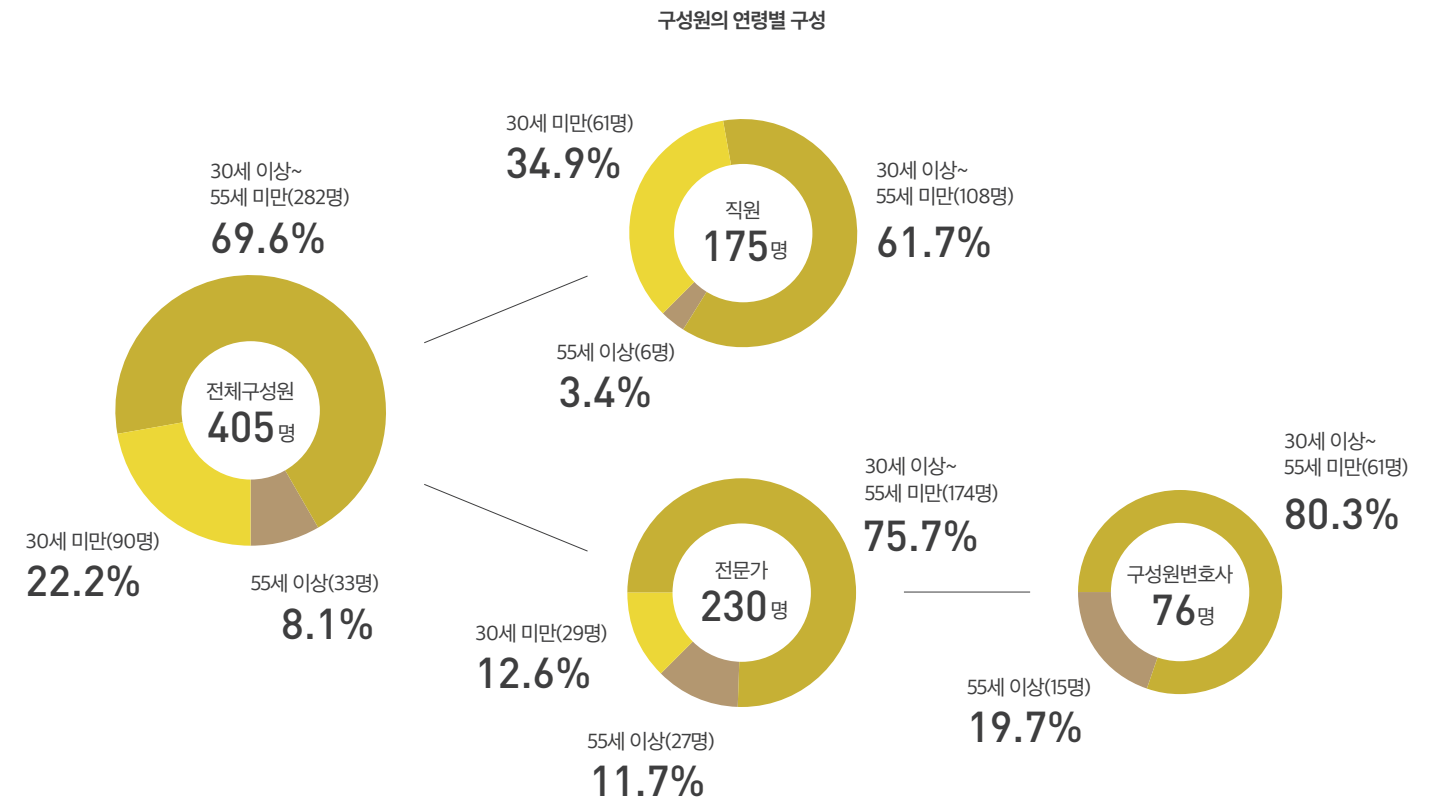


2017-2019년도 신입변호사 성별 비율





2019년 지평의 장애인고용률 3.32% (의무고용률 3.1% 초과)



03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지평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로 육아휴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 것보다 2년 이상 앞서 지평은 2017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유급휴가(불연속)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출산한 직원에게 1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재정적으로나마 육아를 사회적 책임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직원들에게 채용 수요가 있을 때 우선 연락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고 범위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 | | | |
|------------------------------------|----------------|----------|----|
| 2019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 ¹⁾ | 총 6건 | | |
| | 전문가 | 출산휴가만 사용 | 1건 |
| | | 육아휴직 사용 | 3건 |
| |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 | 2건 |
| 직원 | 총 0건 | | |
| | 출산휴가만 사용 | 0건 | |
| | 육아휴직 사용 | 0건 | |
| |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 0건 | |

| | | |
|-----------------------------|-----|---------|
|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기간 포함) | 전문가 | 평균 5개월 |
| | 직원 | 평균 14개월 |

| | | | |
|---|----------------------|--|--|
|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실적 ²⁾ | 출산휴가 총 4명 | | |
| | 육아휴직 총 2명 (평균 3.5개월) | | |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육아휴직을 사용한 구성원 수 ³⁾ | 남성 | 0 | 1 | 1 | 2 |
| | 여성 | 18 | 18 | 12 | 8 |

1) 2019년에 시작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 집계하였습니다.

2) 2019년에 종료되거나 시작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집계하였습니다.

3) 두개 연도에 걸쳐 사용한 육아휴직은 중복되어 집계될 수 있습니다.

04

소수자 차별금지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지평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평은 로펌 중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명함을 전사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보조 업무를 맡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내용 및 직급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직원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9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합니다. 2019년 지평의 장애인 구성원 비율은 3.32%로 의무고용률인 3.1%를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및 공익위원회 내 장애인권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지평은 성평등한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강화를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평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활동과 제도를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동료로 인정받는 건강한 직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 구분 | 건수 | 처리경과 |
|------------------|----|-------------------|
| 회사생활 편의사항 개선 관련 | 1 | 고충처리담당자 보고 후 처리완료 |
| 직장 내 안전보건 문제 | 1 | 고충처리담당자 보고 후 처리완료 |
| 직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 | 1 | 고충처리담당자 보고완료 |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0 | - |
| 성희롱·성폭력 관련 | 2 | 처리완료 |

05

교육과 훈련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지평은 로펌 최초로 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평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평 안팎의 다양한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입변호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금요일 총 15회에 걸쳐 법률실무 전반을 학습할 수 있는 '금요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사들이 작성한 의견서 혹은 소송서면을 교육연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강평하는 '서면 강평회',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함께 연구하는 '판례 세미나', 세부 법률분야별 '전문분야 세미나', 글쓰기, 상담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협상론 등을 배우는 '실무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평아카데미

2019년도 지평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매달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지평 내 혹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자 | 강연주제 |
|-----------|---|
| 2019년 2월 | 분자진단과 헬스케어 |
| 2019년 3월 | 기업법무- 로펌 도와주세요! |
| 2019년 4월 |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경제 DNA |
| 2019년 5월 | 찾아가는 윤리연수 |
| 2019년 6월 | (1) 풍력 사업의 특이점과 법률자문사의 역할 (2) 태양광 사업의 특이점과 법률자문사의 역할 |
| 2019년 9월 | 의견서 매뉴얼 소개 |
| 2019년 10월 | 변호사가 알면 도움되는 협상기법 |
| 2019년 12월 | 나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다 |

변호사 장기연수

지평은 변호사에 대한 장기연수를 중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미국 로스쿨 LLM 과정 이외에도 해외사무소 근무, 외국로펌 근무, 국내 기업 및 정부기관 근무 등 다양한 장기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사 후 4년 반(법무관 출신) 또는 5년 반(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이상 근무한 한국변호사가 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각 4명의 변호사가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도 금요세미나

2019년도 금요세미나는 신입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7월 19일 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지평은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으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차 | 강연주제 | 주차 | 강연주제 |
|-----|------------|------|---------------------------|
| 1주차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 9주차 | 수사절차 형사재판절차 |
| 2주차 | 상법의 주요 쟁점 | 10주차 | 지적재산권법 개관 |
| 3주차 | 대출계약과 담보 | 11주차 | 건설·부동산 업무 개관 |
| 4주차 | 기업회계 개관 | 12주차 | 행정소송 쟁점과 사례 |
| 5주차 | 공정거래법 개관 | 13주차 | 금융관계법 개관 |
| 6주차 | 도산법 개관 | 14주차 | 자본시장법 개관 |
| 7주차 | 근로기준법 개관 | 15주차 |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방법 외국환거래법 |
| 8주차 | 조세법 개관 | |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 |

1인당 교육훈련시간 통계(서울사무소)

| | 전문가 | 직원 | 전체 |
|--------|--------|-----|--------|
| 총 시간 | 2397.2 | 642 | 3039.2 |
| 1인당 시간 | 13.6 | 4.6 | 9.6 |

정기적인 인사평가

지평은 소속변호사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변호사 중 장기연수나 휴직 중인 경우와 직원 중 입사 3개월 미만인 수습직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소속변호사(한국변호사) 중 평가 예외 대상을 제외한 90.9%가 평가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91.2%가 평가를 받았니다. 직원들의 경우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습직원을 제외한 95.6%의 직원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소속변호사 | 90.9% | 91.2% | - |
| 직원 | - | - | 95.6% |

06

복지와 안전

가정 및 육아 지원

지평은 직원이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0회 총 100만원).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등학교 지원을 위한 자유로운 출퇴근제 사용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입학 시 대표변호사의 응원 격려 편지와 축하 꽃바구니 전달, 대학교 입학 시 학자금 400만원을 지원하여 구성원의 자녀가 회사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2017년 3월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제도는 장기근속한 구성원에게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경우 3년을 근무한 소속변호사(2주일), 직원의 경우 10년차(2주일), 20년차(1주일)에 해당하는 때에 안식휴가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의 휴식과 충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소속변호사와 직원들이 팀별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안식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전문가 | - | 14 | 8 | 9 |
| 직원 ¹⁾ | - | - | 11 | 10 |

1) 10년차 안식휴가 준수입니다. 20년차 안식휴가는 지평 20주년이 되는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가 생활 지원

지평은 직급별로 복지비를 지급하여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매월 1회 금요일 퇴근시간을 12시 30분으로 앞당긴 조기퇴근제, 연 6회 2시간 외출제 및 생일을 맞이한 구성원의 생일축하 조기퇴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업무상 상병 및 처리 사례

지평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무는 없으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업무상 상병은 산재 1건(출퇴근 중 발목염좌: 산재접수를 통해 휴업 및 진료비 지급), 공상 2건(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염좌: 진료 및 약제비 지급)으로 총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은 구성원의 대다수인 사무직 또는 전문직 구성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평은 직원이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만 40세, 만 50세가 되는 해에는 종합건강검진비용을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종합건강검진비용지원 대상 직원은 총 6명으로 합계 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 노사협의회의 성과와 과제



조원의 차장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저는 지평 근로자 중 3명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으로서 고충처리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2019년 노사협의회를
간단하게 평가해 주세요.

2019년도 노사협약에 앞서 지평 직원근로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사측에서도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당시 회사상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근로자들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고충과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민주적인 방법으로 잘 논의하였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희망하고 기대했던 연봉상승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을 표현한 근로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019년 노사협의회의 주요 성과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① 3일 유급 병가 도입(전염성 질병), ② 팀 엠티 비용 인상, ③ 생일자 조기 퇴근 제도 도입,
- ④ 외출 제도 사용일수 확대, ⑤ 승진자 축하금 인상, ⑥ 캐주얼데이 확대

2019년 노사협의회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근로자들이 바라는 것은 업무와 역할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근무환경개선일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2019년에도 위 2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어 사측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적인 노사협의회의 모습 또는
지평과 노동자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요?

사측과 근로자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협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평과 근로자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지평은 근로자 관리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는 지평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회사의 이익과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평범했던 일상을 값진 기억으로



한철웅 변호사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큰 아이가 5살, 둘째가 2살이 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는 7월초에 말씀을 드렸고, 한 달 조금 넘게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졌습니다. 팀장님과 팀원분들 모두 오히려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오라"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준비해서 1달 조금 넘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데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걸, 죄송하고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육아휴직 기간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육아휴직 중에는 말 그대로 육아 및 집안일을 제대로 해봤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집의 뒷정리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가족이 다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제대로 해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 1달 정도는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육아휴직 2주만에 손목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모두 기억에 남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어떤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무급휴직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지평 경영방침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은 어떤 의미인가요?

육아휴직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항상 미안했고요. 아이들이 가장 예쁘다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육아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아이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경험이 되었습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ETHICS

지평은 고객, 구성원 및 회사, 국가와 사회에 갖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회사 설립과 동시에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지평의 윤리헌장은 지평의 모든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자 행동 원칙입니다. 지평의 모든 구성원은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지평의 윤리헌장

지평은 설립과 함께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관련 법규와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윤리헌장은 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등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헌장

1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 직역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의 직역에 따라 적용되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리사법과 관련 규정, 공인회계사법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내용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하며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에 관하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4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7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동일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10 지평의 구성원들은 공익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의 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신조, 협약 및 규칙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한다.

5 지평의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사회정의 또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않아야 한다.

8 지평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11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신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지평의 구성원들이 이 윤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에게 보고하거나 질의하여야 한다.

3 지평의 구성원들은 보편적인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임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6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9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비롯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2 지평의 구성원들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02

윤리의 실천과 통제

윤리위원회의 운영

지평은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정비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경영위원회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대표변호사와 3명의 구성원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게 법조윤리, 반부패 및 청렴의무의 준수와 실천을 요구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 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윤리성 지표 준수

| 항목 | 존재여부 |
|----------------------------------|------|
| 이익충돌 시 내부통제절차 | 있음 |
| 위법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절차 | 있음 |
| 청탁금지법 준수 기준 여부, 교육여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 있음 |
| 전관 변호사 및 비법조인 전문가 활용에 관한 법조윤리정책 | 있음 |
| 비법조인 전문가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 있음 |
|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 있음 |

윤리 통제 절차

경영위원회와 각 팀장들은 윤리성, 청렴성, 반부패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윤리헌장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되거나 신고된 사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 받은 사건, 경영위원회 및 감사가 조사를 요청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윤리헌장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인력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시 신고절차가 존재합니다.

03

윤리적인 수임

비윤리적인 사건의 수임 배제

지평의 윤리헌장 제3조는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 수임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당한 범위를 넘는 활동을 요구할 경우 그 사실을 성실히 설명하여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불가능할 경우 사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거나 넘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방지

지평은 변호사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컨플릭트 체크 기준을 도입하여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의 의뢰가 있을 경우 기존에 대리하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다른 대리인을 소개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익사건 수임

지평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신분, 그 밖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조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지평의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없으나 공익을 위하여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위원회에 통보하여 공익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단 수임한 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나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으로 처리합니다. 2019년 지평이 수행한 공익소송은 79건, 공익자문은 370건에 이릅니다.

04

공직 퇴임 전문가 근무 현황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¹⁾ 지평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영입하더라도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 사이에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의 사건에 관하여는 이들의 업무 개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평은 2019년도에 공직 퇴임 변호사의 업무수임 제한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건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가 실제 업무 수임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에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어 징계된 경우였습니다.

1) 다만 검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으로 인해 2년간 수임이 제한됩니다.

공직 퇴임 전문가 명단

| 법조인 | | | | 비법조인 | | | |
|-----|---------|---------|----------------------|------|---------|---------|------------------------------|
| 성명 | 공직 퇴임일 | 입사일 | 퇴직시 직위 | 성명 | 공직 퇴임일 | 입사일 | 퇴직시 직위 |
| 강경운 | 1998.08 | 2011.0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강영주 | 2002.04 | 2009.09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 강성국 | 2015.02 | 2015.03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두영 | 2019.06 | 2019.09 | KOTRA 상임이사 |
| 강호정 | 2012.02 | 2013.12 |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 김병률 | 2016.12 | 2017.01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
| 곽경란 | 2019.03 | 2019.03 | 대한민국국회 보좌관 | 김석동 | 2013.02 | 2015.04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권창영 | 2017.02 | 2017.03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김시문 | 2017.12 | 2018.01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
| 김강산 | 2019.02 | 2019.03 | 광주지방법 부장판사 | 서문용체 | 2011.02 | 2014.07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
| 김동아 | 2019.02 | 2019.03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준길 | 2006.11 | 2015.11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장 |
| 김지형 | 2011.11 | 2012.12 | 대법관 | 장영은 | 2018.02 | 2018.02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상장부 팀장 |
| 문수생 | 2018.02 | 2018.03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장항석 | 2007.10 | 2012.10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 박영주 | 2001.02 | 2001.02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진연수 | 2006.12 | 2012.11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사무관 |
| 박정수 | 2015.02 | 2015.03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 | |
| 사봉관 | 2016.02 | 2016.03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 | |
| 성창익 | 2012.02 | 2017.12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 | | |
| 신승기 | 2007.08 | 2012.06 | 부산지방법검찰청 특수부 검사 | | | | |
| 오자성 | 2017.08 | 2017.09 |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 | | | |
| 이공현 | 2011.03 | 2011.03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 |
| 이상근 | 2007.02 | 2012.06 | 부산고등법원 판사 | | | | |
| 이홍재 | 2009.01 | 2013.04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 | | |
| 장기석 | 2019.08 | 2019.09 | 제주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 | | | | |
| 최세훈 | 2016.01 | 2016.02 |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 | | | |
| 최영남 | 2017.02 | 2017.02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 | |
| 한재철 | 2002.02 | 2011.0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 | | | |

05

고객의 비밀 준수

비밀의 준수

로펌과 그 소속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평은 이를 윤리헌장 제8조를 통해 한층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과 그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평의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말과 행동, 회사의 관리 및 제3자에 대한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지평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고객과 구성원, 실무수습 참가자 등의 귀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알리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INTERVIEW

지평과 윤리



심희정 윤리위원회 위원

윤리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해 주십시오.

사회 규범인 법률을 다루는 로펌으로서 지평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또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관련 내부규정들을 제·개정하거나 가이드를 제시하고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윤리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변호사 윤리에 위반한 업무수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윤리위반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2019년 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2020년 활동계획은 무엇인지요?

2019년 윤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변호사들의 증권거래 및 고객에 대한 변론 수행 과정에서의 법조윤리 준수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어 증권거래 및 변론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법조윤리의 철저한 준수를 담당부하는 선에 그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윤리규정과 윤리헌장을 재공지하였는데 2020년에는 윤리헌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춘 개정 및 보완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이 제정된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지평 내부 시스템의 점검 및 보완 역시 2020년 활동계획의 하나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업무계획으로 변호사 윤리에 저촉될 위험이 큰 사건이나 컨플릭트 사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 발생시의 통제절차와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법이나 지평의 윤리헌장, 기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을 접한 지평 구성원은 윤리위원회에 이를 알리는 제보 및 내부고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관련자의 징계를 개시하도록 경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윤리경영 달성에 공로가 있는 구성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예방책으로 윤리위원회는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펌에게 앞으로 윤리성이 더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으로 지평이 걸어가야 할 길 또는 지향점이 있다면 무엇일지요?

지평은 설립 때부터 전문가 윤리의 준수와 공익의 추구가 고객의 이익 및 로펌의 성장과 공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로펌이 추구하여야 할 올바른 길이라는 믿음을 구성원들간에 공유해 왔습니다. 로펌이 자문하는 사건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지평도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힌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종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유형의 사건들이 예상치 않게 사회적 윤리적인 물의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의 난관이 있지만 설립 때부터 가져왔던 윤리경영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평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인데, 이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전문가로서의 이해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윤리적인 업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실력과 윤리의식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가 지평의 구성원들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ENVIRONMENT

지평은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해야 하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그린오피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도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되는 인류의 당면 과제입니다. 지평은 로펌으로서의 이익창출 외에 공익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온실가스 절감을 통한 저탄소형 사업장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경영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01

그린오피스 정책

PAPERLESS OFFICE

지평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고 자료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Paperless Office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프린터기 사용을 줄이면, 인쇄로 인한 탄소와 열 그리고 쌓여있는 서류로 인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감소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기청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Paperless office와 다른 사무실의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유해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 | 일반 사무실(예 1) | 일반 사무실(예 2) | PAPERLESS OFFICE |
|----------|-------------------------|-------------------------|-------------------------|
| 포름알데히드 | 0.018 mg/m ³ | 0.031 mg/m ³ | 0.009 mg/m ³ |
| 미세먼지 | 012 µg/m ³ | 010 µg/m ³ | 011 µg/m ³ |
| 휘발성유기화합물 | 0.139 mg/m ³ | 0.190 mg/m ³ | 0.072 mg/m ³ |

지평은 사내 웹진으로 공기청정도 측정실험 결과를 알리는 등 Paperless Office와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 환경의 장점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평 구성원의 1인당 복사용지 사용량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인당 복사용지 사용량은 4.13박스로, 2016년 5.39박스에서 약 23%가 줄었습니다.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복사용지 1BOX(2,500장) | 총 소비량 | 1,420 | 1,290 | 1,340 | 1,345 |
| | 1인당 소비량 | 5.39 | 4.69 | 4.49 | 4.13 |

친환경 차량 정책

지평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평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41대 중 9대가 친환경 차량이고, 이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7대, 전기차가 2대입니다. 업무 차량 선택 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주한 건물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지평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매일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일괄적으로 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등캠페인은 환경실천소모임의 제안에서 시작되어 전사적 정책으로 자리잡은 지평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입니다. 지평의 서울사무소는 지속적인 인원 증가와 이에 따른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사무실 확장으로 인해 전체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가한 인원을 반영하여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2019년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77.47kWh로 그 이전 3개년 평균의 약 5.7%인 125kWh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소나무 8.8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2020년에는 전기 및 수도 사용량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2020년에도 자동소등을 계속 실천할 예정입니다.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전기(kWh) | 총 소비량 | 587,196 | 595,924 | 658,610 | 675,178 |
| | 1인당 소비량 | 2232.68 | 2167.00 | 2210.10 | 2077.47 |
| 수도(t) | 총 소비량 | 273 | 266 | 304 | 362 |
| | 1인당 소비량 | 1.04 | 0.97 | 1.02 | 1.11 |
| CO ₂ 발생량 ¹⁾ (Kg) | 총 발생량 | 364,445.5 | 366,191.4 | 408,037.8 | 435,019.5 |
| | 1인당 발생량 | 1,385.72 | 1,331.61 | 1,369.25 | 1,338.52 |

1) CO₂ 발생량은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 활동

지평은 2015년 9월부터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사내 소모임인 환경실천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정기모임을 통하여 사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경실천 프로젝트들을 논의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이 제안하는 다양한 캠페인들은 지평의 환경 정책 수립에도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실천소모임이 제안한 '전기절약 캠페인'을 중심 과제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실천소모임은 '중고책방' 등과 같이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운동을 기획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재사용 커피컵 홀더 만들기' 및 사용을 독려하고, '환경실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환경보호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



박시원 과장 (환경실천소모임)

환경실천소모임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빌링팀의 안현정 대리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환경실천소모임의 회원은 모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저는 어떠한 고민이나 부담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무엇가요?

환경실천소모임에 참여할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보호는 저에게 잘 와닿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 감명을 받아, 이를 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환경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기후변화와 '원자력 발전에 따른 방사능 폐기물 유출' 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 새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과 공기, 깨끗한 물, 뒤눌 수 있는 안전한 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평과 지평 구성원에게 바라는 것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환경실천소모임은 모임의 취지, 회원들의 인품, 회원들과 환경과 관련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 모두 너무 매력적인 모임입니다. 환경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과정 또한 상당히 즐겁습니다. 지평 구성원들이 환경실천소모임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JIPYONG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2부 | ESG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설치 소송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장애인이 추락사한 사건을 계기로, 두루는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에 리프트 대신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차별구제소송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가 모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

지평은 2019년 사회적가치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지평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로펌 중 사회적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회적가치를 경영목표로 추진하는 곳은 지평이 최초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유엔 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에도 가입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두루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원으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루는 법률상담, 교육비·생계비·의료비 지원, 인식개선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평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에서 주로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난민가족의 입국을 위한 소송 승소

지평과 두루는 공항에 체류 중인 난민가족을 대리해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공항 환송구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을 근거로 난민심사에 회부하라고 판결했고, 이들은 287일 간의 공항 생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 사건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상

지평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들을 수행해왔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소송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변론했고, 최근에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평은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첫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두루는 지평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후원으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함께 최초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익변호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안정적인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한국심의 대응

두루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대한민국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두루는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부터 본심의 참여, 위원회 위원들과의 미팅 등의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아동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심의의 최종견해 및 권고의 이행 촉구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평과 두루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발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이 그 정체성에 맞는 조직을 갖추고, 원칙에 따라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호적 특성을 전제로 한 법제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법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협동조합법제를 검토하고,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간사로 활발한 활동

지평과 두루는 올해 '로펌공익네트워크'의 간사를 맡았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로펌들이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올해는 사회적약자 권익옹호기관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난민 지원을 위해 난민인권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창립 5주년

두루는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5주년을 돌아보는 보고서를 제작하였고, 9월에는 두루의 이사회, 회원, 기부자, 협력 단체, 의뢰인 등 그동안 고마웠던 인연들을 모시고 5주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두루는 뜨겁고 활기차게 활동하려 합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LEGAL PROBONO

법률공익활동

지평의 구성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수행하는 소송·자문 등 법률공익활동은 소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외하면

전부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2019년 지평의 구성원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합산하면 총 8,308.45시간에 달하며,

이를 전문가의 시간당 보수로 환산하면 5,867,958,900원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이룬

제도개선과 소수자 권익증진 성과의 가치는 위의 단순 환산 가치를 크게 넘어섭니다.



장애 인권

활동

주요 활동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수행 ·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공익소송 수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신길역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주요 지하철역사 승강기 설치 요구 차별구제소송 수행 · 장애인 선거권정보접근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인강학교 폭력사건 피해자 형사사건 지원 · 장애인 작업장 내 인권침해 등 형사사건 지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자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의 참여, 상시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운동 ·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 운영 · 「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규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수행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운동 ·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및 소송 수행 ·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 운동

두루는 9개의 장애인단체, 아동단체, 법률가단체로 구성된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과 연대하여 모든 아동이 놀이터 접근과 놀이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도로는 휠체어그네와 같이 장애 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두루는 5월 30일 통합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팝업 통합놀이터를 위 추진단과 함께 열었고,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및 공동주관을 맡았습니다.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지평과 두루는 2016년 장애인 시설 접근권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모순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개선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들을 대리하여 카페와 편의점, 호텔업체를 상대로 직접적인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도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활동지원, 장애유아 교육권 등 법 개정 운동

지평과 두루는 탈시설 연구와 소송을 통해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안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자격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TF를 꾸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대상임에도 교육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유아들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수용자녀 법률지원사업

지평과 두루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으로 '수용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두루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수용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인권에 관심이 많은 지평의 변호사들이 법률상담 및 지원, 매뉴얼 제작, 토론회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두루는 전국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의 수용자로부터 직접 자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아, 수용자녀 및 양육자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비·생계비·의료비 지원을 하였고, 수용자녀 인식개선 영상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한 400건에 가까운 수용자녀 사례를 바탕으로 수용자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

활동

주요 활동

· 수용자녀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매뉴얼 집필 ·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소송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및 무고사건 피해자 대리 · 아동학대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대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대응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활동 · 「입양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입법운동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입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연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구 및 운동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 및 운동 ·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 운동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활동 · 애란원 법률교육, 법률자문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 찾아가는 법률교육 · 경기남부해버라기센터(거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이브더칠드런, 심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찾아가는 법률교육

지평과 두루는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서울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구체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에는 지평과 두루 변호사 10명이 참여하여 학교에 찾아가셨습니다. '말과 법', '민주시민의 덕목',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 '불법다운로드, 어디까지 해봤니(지적재산권)', '꺼진 글도 다시 읽자(법문서작성의 이해)', '소년법', '과학과 법률' 7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앞으로는 매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소송

두루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와 함께 해외입양의 관행과 역사를 되짚어 보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잘못된 해외입양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해외입양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입양되었다가 갑자기 추방되어 한국 땅에서 가족한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양기관이 고아가 아니었던 의뢰인을 기아로 신고해 기아호적을 창설하고,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리입양제도를 유지하고, 입양 이후에도 재외국민의 보호를 게을리한 점 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소셜벤처는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인 까닭에 법률 리스크가 크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9년 소셜벤처의 사업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셜벤처를 매칭하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을 하였습니다. 20개의 소셜벤처와 매칭된 40여 명의 변호사들은 소셜벤처들의 법률주치의로서 활발하게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권경영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 수행

지평과 두루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경영지표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집중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업에 특화된 인권경영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직후에는 대상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별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인권경영과 사회적가치경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법률 및 인권 교육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다수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김용진 변호사가 소셜임팩트를 지향하는 조직과 단체들이 모임인 임팩트얼라이언스에 감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법률지원
- 인권경영지표 개발 연구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
-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 금융취약계층 지원 단체(주빌리은행,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 대한 법률자문
- 비정상대출(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 사회적기업 전문투자신탁 펀드 조성 등 임팩트 금융 관련 법률자문
- 협동조합 제도개선 연구회(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참여
- SIB 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입법운동
- 유럽연합 협동조합 공동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개선 방향 연구
-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대상 법률 및 인권 교육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관 캐나다 사회적 금융 연수 참여

사회적경제 · 기업공익

활동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 이주민 인권

활동

주요 활동

- 난민인정신청 조력,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리
- 난민인정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제도 개선 관련 인권위 진정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신청 등 외국인 구금 해제 조력
- 가족결합권, 아동구금 관련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 제주 지역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및 공항만 난민신청자 법률 조력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소송 대리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CM) 백서 작성
- 공항 구금 난민신청자 가족 난민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국제 NGO의 기부 및 모금 관련 국내법체계에 대한 법률자문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및 법률자문, 서남권글로벌센터 정기 상담 및 법률자문
- 혼인이주 여성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
- 이주민 대상 법률 및 통번역 교육, 선주민 대상 이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법률 교육
- 난민인권센터 지원, 난민 네트워크 참여 및 난민 혐오 대응 실무그룹 참여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참여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시민사회 대응 참여
- 유엔 각종 인권관련 이사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 및 개인 진정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 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금 난민 등 취약한 상태의 난민 대리 및 제도 개선 노력

지평과 두루는 287일만에 인천공항 밖으로 나온 난민 가족을 비롯,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취약한 지위의 난민들을 조력하였습니다. 그중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구금된 사례도 있었고, 한국의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1년 넘게 구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루는 구금 외에도 사회적약자의 지위에 있는 난민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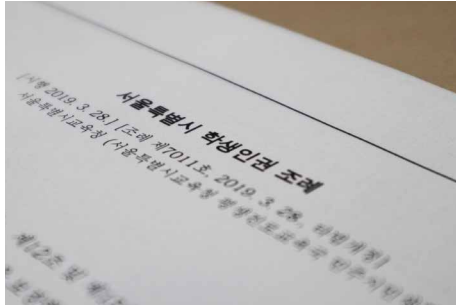
유엔 아동권리협약 본심의 대응 및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GCM) 번역

두루는 9월에 열린 아동권리협약 본심의 대응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국내에서는 심의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감동, 동천 등과 함께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의 번역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컴팩트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루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기구, 제도 등을 국내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통번역 교육

두루는 이주민센터 친구, 수원이주민센터 등에서 이주민을 한 법률 통번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주민이 민사, 형사, 가사 등 사법절차에서 적절한 통역을 지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두루는 향후 사법절차에서 통번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 관련 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합헌결정

지평과 두루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대리하여 수행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헌법소원에서, 학교 내 차별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형자의 인권증진 활동

두루는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형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두루는 여름철 폭염에 대해 대책이 없는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서적까지도 반입을 불허하는 불합리한 지침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루는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방문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지뢰피해자 위로금 사건 승소 확정

두루는 과거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지뢰피해자들을 대리한 '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지뢰사고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었던 지뢰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타 공익

활동

주요 활동

- 선거의 자유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집회·시위의 자유 /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통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자문
- 여성 인권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군 인권 / 군 훈련소 내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복무 중 희귀질환 발병자 대리 국가유공자인정소송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 기타 / 피보호감호자 임금청구소송
- 기타 / 수형자 의료권 침해사건 법률조력
- 기타 / 중국동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국가배상청구소송
- 기타 / 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금청구소송
- 기타 / 엄공동 살인사건 재심청구
- 기타 /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 기타 / 공익신고자 보호
- 기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위헌소송

공익법 증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활동

주요 활동

- 두루, 공익변호사 1명 추가 채용
- 한국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수행 및 정책토론회 주최
- 로펌 공익네트워크 간사단체 활동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사무국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미당' 참여 및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아산나눔재단 자문

한국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지평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후원을 받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과 두루는 한국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로 공익변호사단체의 성과와 의의, 공익변호사의 욕구를 담아낸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익변호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공익변호사로 개업하려는 변호사들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지평과 두루가 간사로 활동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수요와 변호사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사례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리노이주 P&A 기관의 제나(Zena Naiditch)대표가 참석하여 활발한 권익옹호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에서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길을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 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변호사, 단체와의 교류

두루는 2019 PILnet Global Forum에 참석하여 한국의 공익활동 성과를 나누고 해외의 공익활동 사례를 배웠습니다. 또한 국내외 변호사 및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9월에는 공익변호사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 변호사들이 두루를 방문했고, 12월에는 공익변호사 단체를 연구하는 중국인 연구자가 두루를 방문했습니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아시아의 공익변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함께 감동을 느껴요”

인터뷰 | 이경림 세움 대표



지평 · 두루와 활동을 같이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세움은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은 1기로 참여했고,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참여 단체에 법률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과정이 쉽지않은데 이를 논의하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지평 · 두루와 함께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법률전문성이죠. 소송과 자문에서 입법까지 법률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용자자녀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 연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도 되고, 가족들이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에게 더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보편적 아동복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나마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인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용자자녀는 숨겨진 피해자로 법과 제도, 서비스가 전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보는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더욱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평 · 두루와 함께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최근에 지평과 두루를 통해 연결된 수용자자녀가 있습니다. 난시, 근시, 원시, 사시를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세움과 연계된 병원에서 시력교정을 받고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아이를 세우는 일에 법률가, 사회복지사, 의사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루의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다”

인터뷰 | 여연심 두루 후원자

두루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루가 만들어진 2014년, 지평에서 근무하며 두루의 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1년간 두루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했고요. 지금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가끔 물질로 후원하는 시민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루와 함께 하신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미혼모자 생활시설인 애란원과 관련된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애란원에서 법률 관련 강의를 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두루와 함께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법률지원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과정부터 양육 그리고 입양이 필요할 때에는 입양 절차까지요.

두루를 더 알리기 위해 해 주실 조언이 있나요?

저도 여기저기 단체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단체 후원을 할 때에는 보통 총동적으로 했어요. 두루에서 하는 활동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힘든 활동이잖아요. 저같은 사람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활동이 쌓이다 보면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두루의 오랜 후원자로서 후원자가 되실 분들에게 두루를 소개해 주세요.

후원자로서, 여기저기 두루에 후원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아마 저 뿐 아니라 다른 후원자분들도 두루 덕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정말 좋겠네요.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OTHER ACTIVITIES

비 법 률 공 의 활 동

지평과 두루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

지평은 모든 구성원의 공익활동을 연 30시간 이상 의무화 하였습니다. 지평의 공익위원회는 법률공익활동 뿐 아니라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기획하여 구성원들에게 봉사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8년째 농촌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 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10월에도 같은 곳에서 벼 베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앞으로도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노을공원 숲 가꾸기

지평과 두루는 4월 27일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노을공원에서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매해 환경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2명의 구성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도토리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토리 씨앗을 부대에 담았고,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낙엽을 치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평은 숲 조성 및 공기 정화를 위한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계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며 직접 구운 따뜻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다회용 커피컵 홀더 만들기(공익런치)

지평과 두루 구성원으로 구성된 환경실천소모임은 공익런치 행사로 4월 30일 '다회용 커피컵 홀더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커피컵 홀더 대신 친환경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펠트 컵 홀더를 제작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였고, 만들어진 홀더는 사무실 각 층 텀비실에 비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저녁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 정리를 돕습니다. 노숙인분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지평은 5월 11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범무법인(유한)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기업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함으로써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평은 2005년부터 '범무법인(유한)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평 구성원 21명이 자원활동에 참여하였고,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점자도서 원고 입력

지평과 두루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원고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이 신청한 도서를 점자프린터로 출력 가능하게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나눔 봉사활동 참여

지평은 11월 9일 가양동에 위치한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진행된 '2019 가족과 함께하는 아삭아삭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지평 구성원 24명이 봉사자로 참석하여 김장을 위한 세팅 및 절임 배추 물 빼기, 배추 배분, 김치 운반 및 포장 작업 등을 하여 500여 박스의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정성 들여 만들어진 김치는 경제적 어려움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김장김치를 담그지 못하는 지역의 장애인분들께 전달되었습니다.

기부

활동

지평은 사단법인 두루,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노동법연구소 해밀 외에도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연대 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습니다(전체 기부금액의 91%). 또한 장학금을 조성하여 고등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4%). 2019년에는 이외에도 학회, IBA총회 등에 기부하였습니다(3%).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

수용자녀의 인권은 지평과 두루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용자녀 사례를 상담하고, 주요 법률 문제에 관한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녀를 위한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평, 두루 그리고 세움은 서로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공유하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움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운동과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



난민인권센터 인권비 지원

지평과 두루가 간사로 활동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2년 간 재정적, 법률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인권비 지원뿐 아니라, 지금까지 7건의 난민사건을 직접 수임하여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는 그간 협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로 업무협약을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난민인권센터와의 협업은 로펌과 NGO의 의미있는 협업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사북지역의 교육을 위한 협동조합 '천개의 숲'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 음악회, 바자회 지원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 탈북자녀 대안학교 '겨레일 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 난민인권센터 인권비 지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지원 • 시각장애인 로스쿨생 학비 지원 • 한국의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지원
- 장애인인권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벽돌기금' 지원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알기 쉬운 발달장애인법 해설서" 제작 사업 지원

“모두가 책을 느낄 수 있어요”

인터뷰 | 김윤희 부장(공익위원회)



점자 입력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소설, 수필, 시, 인문도서 등 다양한 도서 중 시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은 작품을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이용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입력하는 활동입니다. 이후에 교정과정을 거치면 점자로 변환하여 프린트할 수 있는데, 이후 제본을 거치면 한 권의 점자도서가 완성됩니다.

점자 입력 봉사활동은 어떤 점이 제일 보람이 된다고 느끼셨는지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비장애인 보다 다양한 책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작업한 책이 도서로 완성이 되어 그 책에 담겨 있는 감정들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작된 점자도서를 보면 더욱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평이 더 나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봉사팀에서도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네요.

지평의 구성원들이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평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면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단순한 신체 리듬처럼, 하고 싶을 때 하고, 좀 더 하고 싶으면 조금 더 하고,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언제든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JIPYONG APPENDING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A P P E N D I X

GRI 인덱스

| GRI STANDARDS | | 지표명 | 페이지 | 내용 |
|-------------------|----------|-------------------------------|---|--|
| 일반(GRI100) | | | | |
| 조직 프로필 | 102-1 | 조직 명칭 | 8 | 법무법인(유한) 지평 (JIPYONG LLC) |
| | 102-2 |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 8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
| | 102-3 | 본사의 위치 | 8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
| | 102-4 | 사업 지역 | 9 | (국내) 서울/ 순천/ 부산 (해외) 상하이/ 모스크바/ 호치민시티/ 하노이/ 자카르타/ 비엔티안/ 양곤/ 프놈펜 |
| | 102-5 | 소유형태와 법적 형태 | 8 | 법무법인(유한) |
| | 102-6 | 시장 영역 | 9 | 11개 국내 및 해외사무소에서 기업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
| | 102-7 | 조직의 규모 | 9, 19 | 사무소: 11개 / 구성원: 405명 / 2019년 총 매출: 750억 원 |
| | 102-8 | 구성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 9, 30~31 | 405명(전문가 230명, 직원 175명, 여성전문가 77명, 여성직원128명, 국내사무소 339명, 해외사무소 66명) |
| | 102-9 | 조직의 공급망 | 24 | 노동, 환경,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구매 확대 |
| | 102-10 |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 14~15 | 2019년 9월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 |
| | 102-11 |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 8, 40~45 | 경영위원회의 책임으로 운영, 재무, 준법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 윤리현장 마련과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업 윤리의 위반을 예방 |
| 102-12 | 외부 이니셔티브 | 13, 77~79 | 유엔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 17),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 |
| 102-13 | 협회 멤버십 | | 지평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자각국가의 변호사회에 가입 | |
| 전략 | 102-14 |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 4~5 | MESSAGE(김지형 대표변호사) |
| | 102-15 | 주요 영향, 위험 그리고 기회 | 20 | 지평은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법치주의 구현 등의 임팩트를 창출 |
| 윤리성과 청렴성 | 102-16 |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 10~11, 40 | 지평의 가치(사람중심, 진정성, 친취성, 윤리성) 2019년 경영 키워드(소통, 협력, 도전, 변화) 윤리현장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법조윤리 준수 기준 제시 |
| | 102-17 |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 41, 45 | 윤리위원회를 통해 윤리관련 문제를 신고받아 이를 조사하고 처리 |
| | 102-18 | 지배 구조 | 8 | 파트너총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하고 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회가 책임경영을 실천 |
| 거버넌스 | 102-19 | 권한 위임 | 8, 14 | 경영위원회 아래에 사회적가치 경영을 위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
| | 102-20 |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급의 책임 | 14~15 |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위원장: 임성택 대표변호사 |
| | 102-21 |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 12~13 |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관해 협의 |
| | 102-22 |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 구성 | 8 | 경영위원회는 대표변호사(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와 경영위원(김상준, 김지홍, 이승현, 정원, 정철)으로 구성 사회적가치위원회, 공익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HR위원회 |

| | | | | |
|--------|----------|--------------------------------------|------------------------|--|
| 거버넌스 | 102-23 |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 8 | 지평의 대표변호사: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
| | 102-24 |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과 선정 | 8 | 파트너총회에서 선출 |
| | 102-26 |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 8 | 경영 기본 방침 및 주요 의사결정은 파트너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 |
| | 102-27 |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 8, 14 | 경영위원회는 사회적가치위원회와 7개의 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의 영역별로 의견 수렴,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집단지식 강화 |
| | 102-28 |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 | 경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파트너총회에 보고 |
| | 102-29 |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의 파악과 관리 | 14~15 | 사회적가치위원회와 사무국을 통해 업무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실천 과제 계획 및 진행 |
| | 102-30 | 리스크관리 절차의 효과성 | | 경영위원회의 책임으로 운영, 재무, 준법 등에 관한 리스크 관리 |
| | 102-31 |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의 검토 | 14~15 |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
| | 102-32 |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 14 | 사회적가치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의 관점을 반영하여 보고 |
| | 102-33 |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 경영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 |
| | 이해관계자 참여 | 102-40 |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목록 | 12~13 |
| 102-41 | | 단체협약 | 13 |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채용 및 교육훈련, 안전·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
| 102-42 | |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 12~13 |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
| 102-43 |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 | 12-13 |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 구성원(노사협의회, 예비구성원회의, 사내웹진, 팀별워크숍, 동호회) 고객(홈페이지, SNS, 세미나, 뉴스레터, 보고서와 서적 발간) 지역사회(사회공헌활동, 법률상담) 정부 및 공공기관(위원회 활동, 학회 및 전문가단체 참여) |
| 102-44 | | 이해관계자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 및 관심사 | 13, 36 | 업무시간의 조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등 |
| 102-45 | | 조직의 연결채무제표에 포함된 회사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 | 없음 |
| 102-46 | | 보고 내용과 토픽의 경계 정의 | | 사회적가치위원회 사무국의 회의를 통해 보고내용과 토픽을 확정하였음 (2020년 보고에는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주요이슈 도출 예정) |
| 102-47 | | 중요 토픽 리스트 | 16, 26, 38, 46 | Business, Employment, Ethics, Environment |
| 102-48 | | (이전 보고서) 정보의 재기술 | 84 | 재기술 내용 없음 |
| 102-49 | | (중요 이슈 및 범위 관점) 보고의 변화 | 84 | GRI Standard(Core Option) 첫 적용 |
| 보고서 관행 | | 102-50 | 보고기간 | 84 |
| | 102-51 | 가장 최근 보고 일자 | 84 | 2019년 3월 4일 |
| | 102-52 | 보고주기 | 84 | 1년 |
| | 102-53 |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 84 | 사회적가치위원회 사무국 |

| | | | | |
|-------------------|--------|---|----------------|--|
| 보고서 관행 | 102-54 | GRI Standard에 따른 보고 방식 | 84 | 이 보고서는 GRI Standards(Core Option)을 따르고 있음 |
| | 102-55 | GRI 인덱스 | 72~76 | |
| | 102-56 | 외부검증 | 82~83 | 외부검증은 받지 않았음 (외부 전문가 비평 의견을 받음) |
| 경영 접근방법 | 103-1 | 중요 토픽과 그 범위에 대한 설명 | 16, 26, 38, 46 | Business, Employment, Ethics, Environment |
| | 103-2 | 경영 접근방법과 그 구성 요소 | 16, 26, 38, 46 | (각 페이지 참고) |
| | 103-3 | 경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 16, 26, 38, 46 | (각 페이지 참고) |
| 경제(GRI200) | | | | |
| 경제 성과 | 201-1 | 직접적인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 19 | 2019년도 지평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구성원(급여, 퇴직급여), 협력사(임대료, 구매), 지역사회와 국가(세금, 기부)에 분배 |
| | 201-2 | 기후변화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 20, 48 |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에 자문, 환경단체와 소셜벤처에 법률지원 |
| | 201-3 |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 52~69 | 근로자 1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
| | 201-4 | 정부의 재정지원 | | 재정지원 없음 |
| 간접 경제효과 | 203-1 |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지원활동 | 19 | 2부 지평 · 두루 공익활동 보고(법률 공익활동, 비법률 공익활동) 참고 |
| | 203-2 |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 20~24 |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법치주의의 구현에 기여 |
| 반부패 | 205-1 |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 |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미실시 |
| | 205-2 |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 41, 45 | 윤리위원회에서 교육 실시 |
| | 205-3 |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 | 보고기간 동안 부패 사례 없음 |
| 반경쟁적 행위 | 206-1 |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 | 보고기간 동안 법적 조치 없음 |
| | 207-1 | 세금에 대한 경영접근 | | 관련 규정 준수 |
| 세금 | 207-2 | 세금에 대한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 | 재경 담당 경영위원과 재경팀을 통해 세금관련 절차 준수 및 통제 |
| | 207-3 | 세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경영 | 19 | 국세청 등 관련 정부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지방소득세 등 통해 지역사회 세수 기여 |
| 환경(GRI300) | | | | |
| 에너지 | 302-1 | 조직 내부 에너지소비 | 48 | 2019년 총 전기소비량은 675,178kwh |
| | 302-2 | 조직 외부 에너지소비 | 48 | 친환경 차량 도입 정책 |
| | 302-3 | 에너지 집약도 | 48 | 2019년 1인당 전기소비량은 2077.47.kwh |
| | 302-4 | 에너지 소비 절감 | 48 | 총 전기소비량은 2018년 658,610kwh에 비해 2019년 16,568kwh 증가한 675,179kwh (그러나 1인당 전기소비량은 감소) |
| | 302-5 |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 48 | 소등정책 등 도입으로 1인당 전기사용량이 지난 3개년 평균에 비해 2019년 약 5.7% 감소 |
| 용수 | 303-5 | 용수 사용량 | 48 | 2019년 수도 사용량 총 362t, 1인당 1.11t |
| 생물다양성 | 304-3 |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 66 | 노을공원 숲 가꾸기 |

| | | | | |
|-------------------|--------|---|--------|---|
| 배출 | 305-2 |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 48 | 2019년 이산화탄소(CO2)배출량 총 435,019.5Kg |
| | 305-4 |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 48 | 2019년 이산화탄소(CO2)배출량 1인당 1,338.52Kg |
| | 305-5 |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 48 | 총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은 2018년 408,037.8Kg에 비해 2019년 26,981.7Kg 증가한 435,019.5Kg |
| 컴플라이언스 | 307-1 | 환경법 및 규정 위반 | |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
| 사회(GRI400) | | | | |
| 고용 | 401-1 | 신규 채용과 이직 | 28 | 입사 72명, 이직 및 퇴직 40명, 휴직 19명 |
| | 401-2 |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 | 없음 (구성원의 99.7% 정규직) |
| | 401-3 | 육아휴직 | 32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총 6건(여 4건, 남 2건) |
| 노사관계 | 402-1 |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 | 근로기준법(해고 30일 전 예고) 준수 |
| | 403-1 |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 13, 35 |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 ·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
| 산업안전보건 | 403-2 | 위험 파악,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미실시 |
| | 403-3 |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 13, 35 |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 ·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
| | 403-4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상담 및 소통 | 13, 35 |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 ·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
| | 403-5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훈련 | | 면제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항 마목 기타 전문서비스업) |
| | 403-6 | 근로자 건강증진 | 35 |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
| | 403-7 | 사업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 | 사업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급 및 업무 없음 |
| | 403-8 |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 | | 정규직 근로자 전원 |
| | 403-9 | 업무 관련 상해 | 35 | 총 3건(산재 1건, 공상 2건) |
| | 403-10 | 업무 관련 질병 | | |
| | 404-1 | 구성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 34 | 9.6시간 |
| 훈련 및 교육 | 404-2 |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34 | 지평 아카데미, 금요세미나, 변호사 장기연수, 업무별 세미나 등 |
| | 404-3 |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구성원 비율 | 34 | 소속변호사(한국변호사, 상반기 90.9%, 하반기 91.2%), 직원(95.6%) |
| 다양성과 기회 균등 | 405-1 | 거버넌스 기구 및 구성원의 다양성 | 29~31 | 성별 · 연령별 · 국적별 구성원 비율 소수자 구성원의 수(장애인 9명, 탈북민 1명) |
| | 405-2 |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 | 동일 직급 내 급여 차이 없음 |
| 차별금지 | 406-1 |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 33 | 성희롱 · 성폭력 사건 2건(조치 완료)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 | | | |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407-1 |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와 예방조치 | | 보고기간 동안 없음 |
| 아동노동 | 408-1 |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 보고기간 동안 없음 |
| 강제노동 | 409-1 |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 보고기간 동안 없음 |
| 보안 관행 | 410-1 |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 | | 해당사항 없음(고용된 보안요원 없음) |
| 원주민 권리 | 411-1 |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 | | 보고기간 동안 침해 사건 없음 |
| | 412-1 | 인권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 | 서울사무소(미실시) |
| 인권 관리 평가 | 412-2 |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구성원 교육 | 33 |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평등교육 등 실시 |
| | 412-3 | 인권 조항 또는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 | 없음 |
| 지역사회 | 413-1 |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장 | 13 | 서울사무소는 지역사회를 이해관계자로 설정하여 법률교육, 상담, 자원봉사, 기부 실천 |
| | 413-2 |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 없음 |
| 공급업체 사회적 평가 | 414-1 |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진 신규 공급업체 | | 사회적 영향평가 미실시 |
| | 414-2 | 공급망 내 주요 부정적 사회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 | 주요 부정적 사회적 영향 없음(단순 소비재 구매) |
| 공공정책 | 415-1 | 정치적 기부 | | 보고기간 동안 기부하지 않음 |
| 고객 안전보건 | 416-1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 | 미실시 |
| | 416-2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위반 사건 | |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
|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 417-1 |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을 위한 요건 |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준수, 홍보위원회의 승인 절차 |
| | 417-2 |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와 형태 | |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
| | 417-3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련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와 형태 | |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
| 고객개인 정보보호 | 418-1 |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 | 보고기간 동안 불만사항 없음 |
| 컴플라이언스 | 419-1 | 사회적·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정 위반 | 43 | 공직퇴임 변호사의 업무수임 제한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징계 2건 |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¹⁾

1)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ncsd.go.kr/unsdgs> (2020년 5월 5일 확인)



JIPYONG 범우법인(주) 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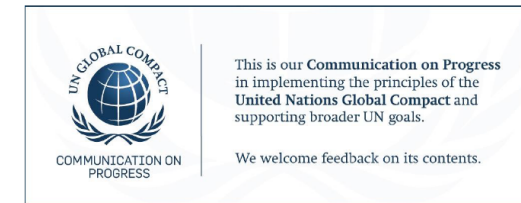
| SDGs | 활동 | | |
|---------|--|--|---------------------|
| Goal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 |
| Goal 2 |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 농업 증진 | 농촌봉사활동 참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 봉사 | 66 67 |
| Goal 3 |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 외부 강연, 세미나 및 법학교육 지원 겨레알학교 후원 | 21~23 68 |
| Goal 4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운동 점자도서 원고 입력 찾아가는 법률교육 | 56 67, 69 57 |
| Goal 5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 이주민 대상 법률 통번역 교육 애란원에서 법률 교육과 법률 상담 성평등 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 59 57, 63 33 |
| Goal 6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 |
| Goal 7 |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 지평의 환경팀 업무 | 20 |
| Goal 8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인권경영팀 업무 노동법연구소 해밀 지원 난민인권센터 인권비 지원 | 58 20 9 68 |
| Goal 9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 증진 |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 등 소셜벤처 지원 | 58 |
| Goal 10 | 국내 또는 국가간 불평등 완화 |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 33 |

유엔글로벌콤팩트

| | | | |
|---------|--|--------------------------------|--------|
| Goal 11 |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 | 56 |
| | |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설치 | 52 |
| | |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 | 56 |
|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 |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 67 |
| | | 다회용 커피컵 홀더 만들기 | 67 |
| Goal 13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한 조치 시행 | Paperless Office | 48 |
| | |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 48 |
| | | 친환경 차량 정책 | 48 |
|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 | |
| Goal 15 |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과 보존,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노을공원 숲 가꾸기 | 66 |
| | | 산림, 환경 관련 소셜벤처 법률지원 | 20, 58 |
| | | 법제연구 및 자문 | 20 |
| Goal 16 | 정의의 증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 40~45 |
| | | 공항 난민가족 입국을 위한 법률지원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 52, 59 |
|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한국심의 대응 | 53, 59 |
| Goal 17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지뢰피해자 위로금 사건 승소 | 60 |
| | |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13, 79 |
| | |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 번역 | 59 |
| | |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 | 14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¹⁾ 지평은 2019년 10월 17일 국내 로펌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지평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념과 10대 원칙을 적극 지지합니다.

1)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글로벌콤팩트 소개' <http://unglobalcompact.kr/about-us/intro/> (2020년 5월 5일 확인)



| 구분 | 원칙 | 활동 |
|-----|---|--|
| 인권 |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지평은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평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준수하며, 유엔 인권규범에 대한 대한민국 심의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지평은 다양한 법률·비법률 공익활동을 통해 국내외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 노동 |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 지평은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의 활동을 촉진·보장하며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의를 중시합니다. |
| |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 지평은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과 국가에 따른 차별없이 다양한 구성원을 채용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소수자차별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 |
| |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
| 환경 |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 지평은 환경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환경관련 소셜벤처와 단체에도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 지평은 사무실의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업무용으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 |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
| 반부패 |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지평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모든 형태의 위법과 부패를 예방·통제하고 있습니다. |

공익활동 평가지표

법률분야 공익활동

| 분야 | 평가지표 | 2019년 |
|---------------------------------------|----------------------------|---|
| 구조 |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 있음 지평 공익위원회 |
| |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 있음 |
| |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 있음 |
| |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 있음 9:210 (외국변호사 제외 8:163) ¹⁾ |
| |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 있음 |
| |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 있음 두루 상근변호사 및 직원, 공익위원회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등 행정업무 지원 |
| |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 있음 연간교육시간 : 10시간 |
| | 총 공익활동 시간 | 8,308.45시간 |
| |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 2.89% (8,308.45시간/287,404.72시간) |
| |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 46.68시간(8,308.45시간:178명) ²⁾ |
| |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 50.35시간(8,308.45시간:165명) |
| |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 92.70%(165명/178명) |
| |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 57.87% (103명/178명) |
| | 활동 | 소속변호사 86명 |
|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 | 구성원변호사 75명 92.00% (69명/75명) 62.23시간 (4667.02시간:75명) |
| 외국변호사(서울) 17명 | | 100.00% (17명/17명) 37.13시간 (631.18시간:17명) |
| 공익활동 지원비 | | 18,959,773원 |
| 공익활동 교육 지원비 | | 2,391,280원 |
|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 | 489,684,412원 |
| 공익활동 관련 예산 | 총액 511,035,465원 | |

1) 비공익변호사와 공익변호사 사이의 비율

2) 공익활동 대상 한국변호사(161명)와 서울사무소 외국변호사(17명)의 합 (이하 같음)

| 분야 | 평가지표 | 2019년 |
|---------------|--------------------------|---|
| 활동 | 공익소송 | 79건 |
| | 공익자문 | 370건 |
| | 공익상담건 | 208건 |
| | 도움받은 사람 | 약 657명 |
| |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 본문 52-63페이지 참조 |
| |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 ①공공기관, 협력 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자원자 배당 |
| 공익활동 지원 | 본문 52-63페이지 참조 | |
|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 본문 52-63페이지 참조 | |
| 평가·보상 |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 ①국내·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 연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소송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 분야 | 평가지표 | 2019년 |
|-----------|----------------------|-----------------------------------|
| 기부 | 기부 총액 | 623,690,058원 |
| |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 1,539,970원 (405명) |
| |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 95.2% (593,732,412원/623,690,058원) |
| 사회 봉사 | 기부 현황 | 본문 68페이지 참조 |
| |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 3,263.5시간 |
| |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 8.06시간 (405명) |
| 사회봉사활동 현황 | 본문 66-67페이지 참조 | |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161명과 서울사무소 외국변호사 17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한국변호사 중 휴직자, 해외사무소 근무 등의 사유로 공익활동 면제를 신청한 자는 제외함)

※ 공익전업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직원, 고문, 자문·전문위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퀴 바 디 스 , 지 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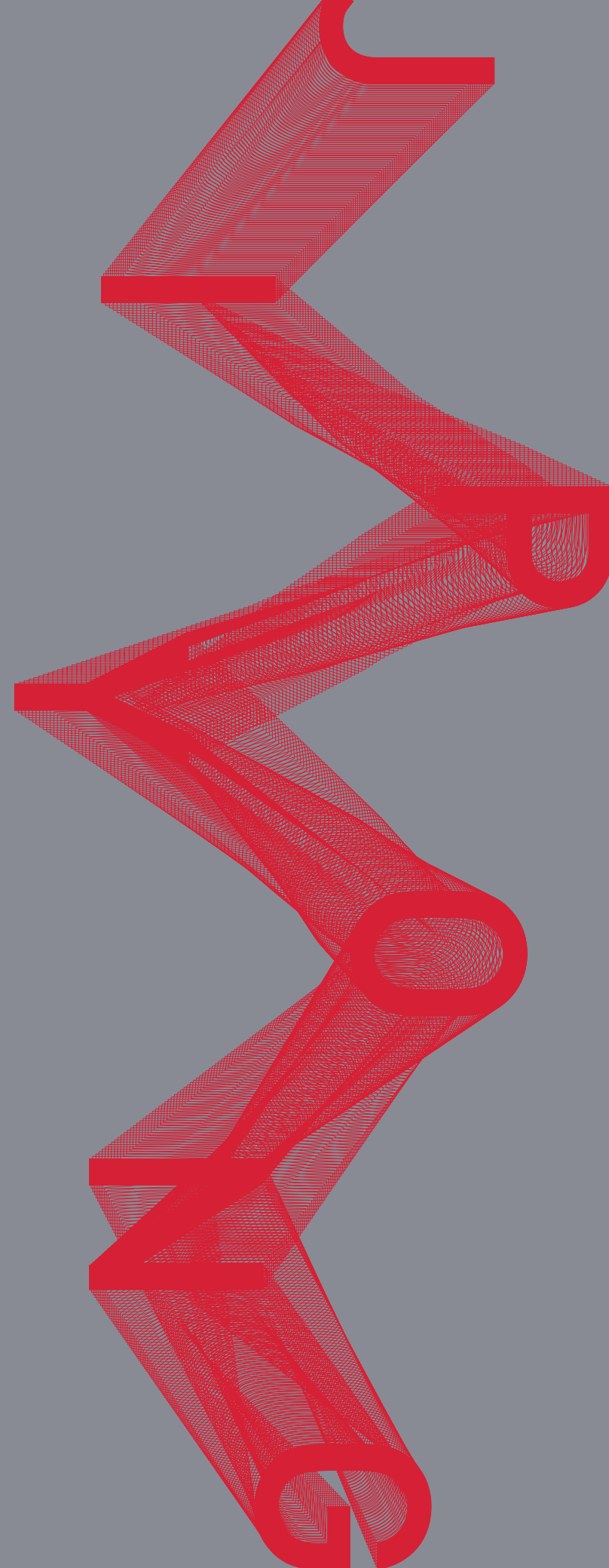
이상수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에 많은 로펌이 있지만 지평에 대한 나의 관심은 남다르다. 지평을 대표하는 간판 변호사들의 면면이 범상하지 않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이들이 일구어 놓은 성과가 눈부시다는 것이 둘째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평을 바라볼 때는 늘 경외감과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읽으면서 나의 이런 기대가 근거 없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그간 지평이 어떤 남다른 노력을 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평은 로펌으로서 보기 드물게 사회적가치(social value)를 조직의 핵심 가치로서 수용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경영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가치를 전사적으로 실천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가치는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한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가치의 동시적 추구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지평이 얼마나 많은 실천을 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그리고 보고서 자체도 글로벌 보고 표준(GRI)에 맞추어 작성됐다. 이른바 '사적 로펌(private law firm)이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추구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보고서의 후반부는 지평의 공익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10대 공익활동을 전면에 내세워 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고, 이어 공익활동의 총 목차와 자세한 내용을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함께 제시하여 그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를 읽노라면 하나의 로펌이 이렇게까지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놀랍고, 읽을수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져온 나로서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2% 부족감을 느낀다. 나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지평이 말하는 사회적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회적가치를 손쉽게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의 동시적 추구라고 정의하는 것은 신뢰감을 주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런 정의에는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로펌은 세 가지 중에서, 다시 말해,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거나, 비경제적 가치를 우선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길을 극단으로 가면 효율성과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통상적인 사적 로펌이 되고, 둘째 길을 극단으로 가면 공익 전문 로펌이 되며, 셋째 길을 극단으로 가면 적당히 크고 적당히 착한 로펌이 된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지평은 첫째 길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대안으로 셋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지평이 이제 상당히 성장했으니 지금부터는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



가 임혀진다는 것이다. 다만 임성택 사회적가치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둘째 길도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밖에서 지평을 늘 응원해온 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학문적 관심을 가져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평이 셋째 혹은 둘째의 길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평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로펌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를 반영한 사회적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글로벌 법률시장에의 진출과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여기서 지평에게 사회적가치나 윤리를 포기하고 적나라한 사적 로펌이 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평의 윤리적 도전을 환영해 마지않는다. 다만 사회적가치라는 단어만으로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온전하게 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급상승하는 단어는 인권경영(business and human rights)이다. 기업의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인권경영을 실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인권경영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고서에 있듯이 지평은 이미 인권경영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로펌 자신도 인권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권 침해하는 의뢰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라는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지평이 글로벌에 진출하고 번성하려면 사회적가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지평이 인권경영에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나아가 제3자 검증을 받은 영문보고서를 낸다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로펌의 인권경영은 글로벌 법률시장에 뛰어들고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게 하는 윤리담론이다.

따라서 보고서를 읽고 드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지평은 장차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현재의 규모에 만족하면서 적당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로컬 로펌이 되고자 하는가? 경제적 가치를 비경제적 가치(즉, 좁은 의미의 사회적가치) 실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공익 전문 로펌이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글로벌에서 번성하면서 윤리적 리더십도 확보한 당찬 로펌이 되고자 하는가? 시장경제에서 선택은 자유이다. 만약 한국을 넘어 글로벌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당찬 로펌이 되고자 한다면,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인권경영의 담론과 성취를 콕콕 눌러 담아야 한다. 이 길이 쉽지 않겠지만 지평이라면 도전할 만하고 이 길보다 더 큰 사회적가치 실천은 없어 보인다.

보고서 발행처

법무법인(유한) 지평

보고서 정보

지평은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2019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국내 로펌 처음으로 '2019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기간

이 보고서는 2019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전 공익보고서 발행일 2019년 3월 4일)

보고기준

이 보고서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글로벌 리포트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andard(Core option)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를 참고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회적가치위원회사무국
02.6200.1600 www.jipyong.com



본 책자는 FSC 인증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들었습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2019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본 책지는 FSC 인증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들었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지평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